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UCI]I804:24011-200000265445

2016년 2월

교육학석사(역사교육)학위논문

을사사화와 盧守愼의 순천 유배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房 致 亨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을사사화와 盧守愼의 순천 유배

Ulsa Sahwa and No Soo-sin's exile in Suncheon

2016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房 致 亨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을사사화와 盧守愼의 순천 유배

지도교수 김 경 숙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역사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10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房 致 亨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방치형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최진규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이종범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경숙 (인)

2015년 1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목 차

ABSTRACT ····· v

Ⅰ. 머리말 ····· 1

Ⅱ. 노수신의 정치활동과 상주 낙향생활 ····· 4

1. 인종 즉위와 노수신의 활약 ····· 4
2. 을사사화와 상주낙향 ····· 14

Ⅲ. 순천 유배생활과 활동 ····· 23

1. 유배길과 유배지 순천 ····· 23
2.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서신왕래 ····· 31
3. 지역민과의 교유와 강학활동 ····· 36
4. 도학적 성찰과 학문 심화 ····· 45

Ⅳ. 맺음말 ····· 49

※ 參考文獻 ····· 51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BSTRACT

Ulsa Sahwa and No Soo-sin's exile in Suncheon

Bang, Chi hyeong
Advisor: Prof. Kim Kyeong sook
Major in History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xile of Nosoosin, who lived during the Reign of King Injong of Joseon Dynasty in the 16th Century and worked as a Jungon for Saganwon, by researching the Collection of Nosoosin's Works, Sojaejip. When he was a Jungon for Saganwon, he denounced the minister's I gi. At that time Sarim criticized Yun wonhyeong's party was the Myeongjong's man of royal relatives by marriage. He also expressed concern about the inaccuracy in a positive manner, he got exile with the consequence that in 1547 after the occurrence of Eulsasawa in 1545.

There is a feature which is distinctive 3 periods (primary period; the dismissal and the exile period in Suncheon in 1545-1547, secondary period; the exile period in Jindo in 1547-1566, tertiary period; the re-exile period in Goesan till the emancipation of exile) to his exile.

There is a feature which he was damaged by readjustment is that the sentence of Sarim the victim of Eulsasawa, not the ordering of the dismissal and the exile while on his ordinary life after dismissal. In this study, I focused on primary period which he was sent to Suncheon.

After his dismissal, Nosoosin asked after his teacher's health and led a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ordinary life with visiting a family member's grave from dismissal to the exile period in Suncheon in his hometown. Unusually, for a noble family, he communicated well with Buddihst monk, and took sometime for thought, learning. These kind of his life framed literary works and the outcome of ideological after re-exile from Suncheon to Jindo.

Although the period of Suncheon exile was short time, he kept in touch with his acquaintance, student and a local resident. This friendship became the powerful energy to solve the problems in the exile in his time. Since he couldn't share all the joys and sorrows with his family, he god rid of his stress by composing a poem or writing a letter. Nevertheless, his felt acute pain in his early age's exile. During his Suncheon exile, he was ordered to withdraw from the command, excepting Nosoosin, he was forced into re-exile to Jindo by Jungmisawa in September 1547 for 19 years.

There are 5 things to studying are below based on the above about dismissing Nosoosin to the exile in Suncheon: First, the life of going down into the country after discharging, Second, the studying of Suncheon a place of his exile and the path, Third, the strong yearning of his family, Fourth, the relationship of friends of his, Fifth, the command of pardon and the details of re-exile.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Ⅰ. 머리말

五刑 중 하나인 流配刑은 단순한 추방형이 아니었다. 입신양명의 꿈을 꾸며 살아가던 이들에게 유배형은 형벌 그 이상이었다.

유배형은 종신형으로 중죄인을 대상으로 행하여지는 사형에 버금가는 형벌이었으며, 그 대상은 신분을 막론하고 직위고하에 관계없이 사회와의 격리를 고하였다. 이렇듯 중죄인에게 내려지는 형벌이었으나, 빈번하게 행하여졌고, 중죄에 해당하지 않을 지라도 정치적 성격과 결부되어 최종 결정권자인 왕에 의해 형벌이 내려졌다.

학계에서는 그동안 유배와 관련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1] 근간의 연구 기록은 법제사적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생활사적인 측면의 연구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런 연구 성과에 힘입어 본 논고는 을사사화 때 정치적 대립으로 유배형을 지냈던 노수신의 순천유배생활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盧守愼(1515~1590)은 인종 대 활약한 사림으로, 중종대 기묘사림을 계승하여 당대 사회·정치적 모순을 비판하였다. 세조의 즉위와 함께 공신세력으로 자리잡은 훈구파는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구조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여 남용하였기 때문에, 당시 조선사회의 근본적인 해결과제는 훈구의 비리를 막고, 견제를 통해 적절히 균형잡힌 조화정치 운영이 과제로 제기되었다. 이런 가운데 사림은 중앙정계에 진출하여 기존 질서에 대한 실망을 공론에 바탕에 둔 사회 개혁적 변화의 시도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에 따른 사림의 피해는 컸다. 사림에 대한 경각심을 바탕에 둔 재인식

1) 지철호,「조선전기의 流刑」『법사학연구』8, 1985. 김경숙,「조선시대 유배형의 집행과 그 사례」『사학연구」55 · 56합집, 1998. 심재우,「조선전기 유배형과 유배생활」『국사관논총』92, 2000. 정연식,「조선시대의 유배생활-조선후기 유배가사에 나타난 사례를 중심으로」『인문논총』9, 서울여자대학교, 2001. 심재우,「조선후기 단성지역 정배인의 존재양태」『한국학보』102, 2001. 심재우,「조선후기 형벌제도의 변화와 국가권력」『국사관논총』102, 2003. 김경숙,「17세기후반 儒生 李必益의 유배생활」『한국문화』38, 규장각한국학연구소, 2006. 이종범,「15세기 말~16세기 중반 전라도 유배인의 활동과 교유양상」『역사학연구』41, 호남사학회, 2011. 신규수,「조선시대 유배형벌의 성격」『한국문화연구』23,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12. 우인수,「조선 선조대 지산 조호익의 유배생활」『조선시대사학보』66, 조선시대사학회, 2013. 정진영,「섬, 풍요의 공간: 19세기 중반 한 유배객의 임자도 생활」『고문서연구』43, 한국고문서학회, 2013.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은 사화로 이어졌다. 기묘사화이후 훈구의 집권 속에 정계에 진출한 노수신은 이 같은 시대적 명분하에 신진사림의 공론을 주도하였으며, 正言으로 활동하는 시기동안 외척 윤원형 세력의 우의정 李芑를 탄핵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 그는 을사사화 때 파직된 후 유배형에 처해진다.

노수신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문학적, 사상적, 사학적인 측면 등 다방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2] 하지만 시와 사상적, 학문적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어 그의 20여 년간 인생을 몸담은 유배생활 자체를 조명한 연구 성과는 찾아 볼 수 없었다. 물론 한문학계에서 詩를 바탕으로 간간히 유배생활을 소개하였지만, 시 해석이 주류를 이루었기에 그 아쉬움이 남았다.[3]

노수신의 유배형은 총 3시기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 순천, 진도, 괴산 유배기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시기는 순천 유배기로 파직 이후의 시기인 1547년 3월~1547년 9월까지 약 6개월의 기간이다. 두 번째 시기인 진도 유배의 경우 을사사화의 여파 속에서 일어난 良才驛壁書事件으로 인해 진도로 이배된 19년간 絶島安置刑에 처해진 시기이다. 세 번째 시기는 선조 즉위 후 노수신의 감형기로 괴산 유배가 그것이다.

노수신의 경우 파직과 동시에 유배형에 처해 진 것은 아니었다. 파직 후 초야에 묻혀 살기로 결심을 하고 지내던 중, 조정에서 그의 치죄가 재 논의되어 1년 6개월 후에 유배를 떠나게 되었다. 노수신과 관련된 그간 사료들을 살펴보면 진도 유

---

2) 김기현,「蘇齋 盧守愼의 人心道心說에 대한 연구」『전라문화연구』2, 전북대학교 전라문화연구소, 1988, 김광순·문경현·최승호,「蘇齋 盧守愼 硏究-文學·政治·思想을 中心으로」 『韓國의 哲學』第17號, 慶北大學校 退溪硏究所, 1989, 조성을,「蘇齋 盧守愼의 學問과 政治活動」『남명학연구』3집, 남명학회, 1993, 김미경,「진도 유배문화의 일고찰 -소재 노수신과 무정 정만조를 중심으로-」『한국도서연구』18권 1호, 한국도서학회, 2006, 신향림,「盧守愼의 心性論과 양명학」『유학연구』16,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007, 최재목, 「朝鮮에서 朱子 『大學章句』에 대한 한 挑戰 : 盧守愼의 『大學集錄』을 中心으로」『양명학통권』27호, 한국양명학회, 2010, 박병익,「蘇齋 盧守愼의 『피구록』연구」『한국고시가문화연구』제29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12.

3) 서수용,「蘇齋 盧守愼 詩 硏究 : 流配期의 詩作을 中心으로」, 학위논문(석사), 성균관대학교, 1984, 채용복,「소재 盧守愼 詩의 연구」, 학위논문(박사), 고려대학교, 1993, 조희창,「蘇齋 盧守愼의 詩文學」『한문고전연구』제16집, 한국한문고전학회, 2008, 조희창, 「蘇齋 盧守愼의 詩文學 硏究」,학위논문(박사), 성신여자대학교, 2011, 정종대,「盧守愼의 시와 性靈陶冶」『선청어문』37·38,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10.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배가 19년이라는 긴 시간을 담고 있기 때문에 파직 이후 그의 행적에 대해서는 진도 유배에 대한 언급이 많을 뿐 초기 유배 시기인 순천과 그 이전 그의 행적에 관하여서는 주목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수신의 순천 유배기에 대한 고찰은 그동안 주목하지 않았던 그의 생애의 한 부분을 재조명하는데서 그 첫 번째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두 번째, 순천 유배기간 동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학문적, 사상적 사유의 변화를 그가 남긴 시와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함으로서 짧은 기간이지만 그의 생활 전반적인 모습을 살펴보고자한다.

본고에서 다루는 시기는 노수신의 순천 유배 6개월 만이 아닌 파직 이후 1545년 10월부터 1547년 9월까지 약 2년간의 시기라 할 수 있다. 단순히 유배적 측면뿐 만 아니라 파직 이후 삶의 모습과 교유를 통한 학문, 사상적 변화를 살피고, 유배령을 받게 되어 유배길에 오르는 모습, 그리고 유배지에 당도하여 보여준 새로운 교유관계의 형성 및 생활 모습 등을 중심으로 그의 유배생활을 살펴보고자 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Ⅱ. 노수신의 정치활동과 상주 낙향생활

1. 인종 즉위와 노수신의 활약

盧守愼의 본관은 8대조까지 살았던 전라도 광주이며, 본가는 7대조가 살았던 경상도 상주이다. 字는 寡悔, 號는 蘇齋 · 伊齋 · 暗室 · 茹峯老人 등이다. 노수신은 조선 초 영의정을 지낸 桑村 盧嵩의 후손으로, 活人署別提를 지낸 부친 盧鴻과 모친 星山李氏의 사이에서 1515년(중종10) 윤 4월 16일 한양 남부 樂善坊에서 태어나 생장하였다.[4]

<표1> 노수신의 가계[5]

盧垓 ……	盧恕	-	亶	-	俊卿	-	崇 ……	翊	-	鴻	┬ 守愼	┬ 大海 (李延慶의 女)
											├ 克愼	├ 戒來 (側室)
											└ 女	├ 戒難 (側室)
												├ 戒後 (側室)
												└ 女 (側室)

15세에 이르자 충주의 灘叟 李延慶(1484~1548)의 문하로 들어가 학문을 배우다가 17세에 그의 딸과 혼인하여 충주에 많이 살았다. 한동안 장인을 스승 삼으며, 기묘사화로 물러났던 이자·김안국·신광한 등의 담론을 들었다. 이때 이언적·권벌·송인수·이황 등과도 인연을 맺었다.

1534년(중종29) 20세에는 생원시와 진사시에 합격하여 성균관에 들어가 김인후·유희춘·정황 등과 각별하게 지냈다. 그의 성균관 생활에 대해서는 『조선왕조실

4) 낙선방; 조선 초기부터 있던 한성부 남부 11방 중 하나로 그 중 태어난 위치는 한양의 건천동, 지금의 서울 중구 인현동이다. (임정기譯,『국역소재집』1권책, 19쪽의 신향림,「양명학자 노수신의 사상과 문학」)

5) 『광주노씨세보』, 光州盧氏世譜編纂委員會盧垓, 2006와 한국고전번역원(http://www.itkc.or.kr)의 『소재집』 해제의 가계도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盧垓가 신라에서 光山伯에 봉해졌기에 후손들이 본관을 光州로 하였으나, 그 후 윗대의 계보가 없어 계통을 밝힐 수 없어 盧垓의 후손으로 고려 때 政丞을 지내고 光州君에 봉해진 盧蔓을 1세조로 하는 계통과 大護軍 盧恕를 1세조로 하는 계통으로 갈리어 世系를 계승하고 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록』에서도 확인 할 수 있는데, '그가 泮學에 출입하게 되자 동렬의 유생들이 숙연한 자세를 취하여 操行이 달라졌으며,'라고 전한다.[6] 소재의 성실한 학문적 태도가 성균관 학생들에게 본보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1543년(중종38) 그의 나이 29세에 문과의 초시, 회시, 전시에 모두 장원하여 벼슬길에 올라, 신진 청론의 선도에 우뚝섰다. 30세에 世子侍講院司書가 되어 인종의 세자시절에《서전》과《자치통감강목》을 강의하며 효도와 우애, 어진이와 사특한 자의 분별을 쉼없이 역설하였다.

노수신이 정계에 진출한 당시의 정국은 훈구와 사림이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세조의 즉위를 도운 공신세력으로 권력을 독점한 훈구파는 논공행상과정을 통해 권력과 부를 확대해나갔으며, 정계 각 요직을 독점하여 정치·경제·사회에 걸친 사회적 문제점을 야기하였다.

이에 따라 성종대 중앙 정계에 진출하기 시작한 사림은 언론 삼사를 바탕으로 훈구의 비리를 지적하면서, 도학정치를 새로운 정치질서의 수립을 통한 군주나 백성이 천명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상사회의 실현, '至治'로 규정[7]하고, 실천에 옮겼다.

이러한 대립은 성종대 정치문제화되지 않던 사림의 언론활동이 연산군대에 훈구파에 대한 사림의 도전으로 간주하면서 사화로 이어졌다. 무오사화에서 기묘사화로 이어지는 세 번의 사화로 다수의 사림이 사사되거나, 파직, 유배형에 처해졌다. 기묘사화 이후에 소수의 사림파는 정계에 남아있었지만, 정계는 훈구파에 장악되었다.

하지만 기묘사화로 큰 피해를 입었던 사림은 중종말부터 인종대에 걸쳐 다시 정치적 영향력을 점증시키는 가운데 외척의 동향 또한 미묘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8] 정국은 권신협력세력과 복권복직세력, 원로중신과 신진사림, 그리고 이해관계가 대윤과 소윤[9]이라는 다른 외척세력이 혼재하였다. 이 세력을 크게 살피면 하나는 권

6)『선조수정실록』권24, 선조23년 4월 1일, 9번째기사.
7) 『한국사』28,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국사편찬위원회, 1996, 8쪽 참고
8) 『한국사』28,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국사편찬위원회, 1996, 200쪽 참고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신정치에 따른 국왕책임과 기묘정치의 재평가이며, 둘째는 국정 주도 및 쇄신에 있어서 주도권 및 인적 쇄신 방안이었다.[10]

대체로 왕실·외척세력은 조정의 안정과 화합을 내세우며 시비를 차단하고자 하였고, 복직파와 신진사림은 시비를 분변한다는 전제 위에서 기묘정치를 재평가하고 여전히 죄안에 두었던 기묘핵심의 완전 복권 및 현량과의 회복을 주장하고 외척의 정치개입을 반대하였다. 전자가 포용안정론이라면 후자는 시비분변론으로 군신공치·군주성학론을 핵심의제로 삼았다.[11]

이러한 정치구도 아래 을사사화가 발생했다. 중종대 정통성을 지닌 왕위 계승자는 인종과 명종이었는데, 왕비 장경왕후 윤씨가 인종을 낳고, 일찍 세상을 떠남에 따라 새로 맞은 왕비 문정왕후 윤씨는 세자로 임명된 인종에게 위협이 되었다. 더욱이 문정왕후가 명종을 낳으면서 이러한 왕위계승을 둘러싼 대립은 더욱 가시화되었다. 이런 갈등 속에서 김안로와 장경왕후의 동생이었던 윤임이 인종을 보필하는 세력으로, 문정왕후의 형제 윤원로, 윤원형이 명종을 옹호하였다.

기묘사화 이후 권력은 훈구파가 권력을 장악하였다. 하지만 훈구파에게 戚臣 金安老(1481~1537)는 또 다른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였다. 김안로는 아들 禧가 부마였던 점을 바탕으로 어린 인종의 보호자로 자처하였고, 그의 권력이 강해짐에 따라 남곤·심정과의 갈등으로 유배를 당하지만, 이후 복직하여 좌의정에까지 올라 권력을 장악하였다.

이때 문정왕후가 명종을 낳으면서 세력이 커지게 되자, 인종의 왕위 계승에 우려가 될 것을 염려하여 김안로는 정유년(명종 32) 문정왕후 측 인물들의 축출에 나

9) 『중종실록』 권100, 38년 2월 24일, 1번째 기사, "…풍문에 의하면 간사한 의논이 비등하여 '尹任을 大尹이라 하고 尹元衡을 小尹이라 하는데 각각 黨與를 세웠다.' 합니다. 그 실정을 따져보니, 윤임은 부귀가 이미 극에 달했고 원형은 청년으로 과거에 급제하여 좋은 벼슬을 역임하였으므로 이미 부족한 것이 없는데 무슨 일을 일으키려고 다시 당여를 세운단 말입니까? 가령 저들이 당여를 세우려 한다 해도 식견 있는 사람이 어찌 그들에게 붙겠으며 또 어찌 다시 그들의 말을 들을 리가 있겠습니까." 대사간 구수담은 중종에게 대윤과 소윤에 대한 소문을 전했다.

10) 이종범, 앞의 논문 77쪽, 차주영, 「16世紀 士林勢力의 執權過程과 政治性向」, 학위논문(박사), 상명대학교, 2004, 82~129쪽 참고. 당시 정국은 척신 김안로의 세력과 훈구 심정의 세력, 성세창, 홍언필 등의 기존사림과 신진사림, 인종을 바탕에 둔 윤임, 명종을 바탕에 둔 윤원형 세력 등으로 혼잡한 양상을 띠고 있었다.

11) 이종범, 앞의 논문 참고, 77쪽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선다. 하지만 그의 계획은 성공적이지 못했다. 오히려 윤씨 형제가 먼저 중종에게 김안로의 부정을 아뢰어, 그는 유배형에 처해진 후 며칠 뒤 사사되었다.12)

김안로의 실세 이후 권력은 훈구파가 장악한 상태에서 1544년 중종이 서거하고 인종이 보위에 올랐다. 인종의 짧은 치세 속에 사림파가 복권되고 있었지만, 명종 즉위 초에도 정치적 분위기의 쇄신은 크게 일어나지 않았으며, 언관은 사림파 우세 속에 사림 특유의 公道·公論을 이끌어갔다.

당시 사림은 정유년(1537년, 중종32) 이 후 정계에 재등장하여 꾸준하게 성장을 계속해 왔으며, 대소윤의 갈등이 심할 때 모두 소윤의 옳지 못함을 비판하면서 명분상 대윤의 입장을 저지하며 문정왕후나 소윤과 대립하는 상태였다.13) 이런 사림의 정계 진출 및 활동은 기묘사화 이후의 잔존 사림들과 재서용된 사림들이 연결되면서 기회를 마련하고 있었고, 신진 사림파의 진출이 큰 몫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상황 하에 문정왕후 측 세력은 그들의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 힘썼다. 이후 윤원형 측근의 李芑(1476~1552)가 우의정에 임명됨에 따라 이기의 체직을 바라는 대간의 상소가 이어졌으며, 노수신 역시 적극 동참하였다. 그때의 상황을 『인종실록』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李芑는 본디 물망이 없어서 贊成에 제수되었을 때부터 물론이 있었는데 중한 자리에 오래 있었으니 외람됨이 이미 심했습니다. 정승 자리로 말하면 결코 擬議할 수가 없는데 이제 議政을 삼았으므로 물정이 해괴하게 여기니 빨리 개정하소서."14)

사림은 이기가 정승이 되리라고 의심하여 이미 탄핵할 뜻을 굳히고 있었는데,15)

12)『중종실록』권85, 32년 10월 24일, 2번째 기사, 『중종실록』권85, 32년, 10월 27일, 5번째 기사.
13) 한춘순, 「明宗代 勳戚政治 硏究」경희대학교(박사학위), 2000, 18쪽, '한편 명분상 인종을 지지하였던 사림세력들의 정치적 입장도 강화되어 있었다. 즉 의정부에는 성세창·이언적·권벌 등이 이상직에, 육조에는 신광한·유인숙·윤개 등이 진출하여 있었다. 대간에는 이해·송인수·민제인 등이 대사헌을 맡았고 송희규·정황·박광우 등이 아래에서 활동하였다. 이윤경·구수담 등이 대사간에 곽순·노수신 등이 그 아래에서 활동하였다. 인종의 승하가 임박한 시기에는 유관·성세창이 각각 좌·우의정이 되었으며, 이언적이 좌찬성에 윤임이 형판에 보임되고, 홍문관에는 이광·박광우·이약해 등이 포진하였다.' 이와 같이 사림의 정계 진출과 관련하여 소윤측 적대세력에 대해 밝히고 있다.
14)『인종실록』권1, 1년 1월 15일, 2번째 기사.
15)『인종실록』권1, 1년 1월 18일, 2번째 기사,『燃藜室記述』권9, 中宗朝 故事本末, 大小尹의 권력다툼,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당시 노수신은 중종 38년 29세의 나이로 대과에 장원급제한 후 사림에 옹호적이었던 인종 즉위와 함께 31세의 나이로 사간원 정언에 임명되어있었다. 탄수 이연경의 제자로서 기묘사림의 뜻을 계승한 채 개혁정치의 동참한 바, 이기의 정승 임명 반대에 그 역시 적극적으로 나섰다.

인종이 보위에 오른 지 7개월 만에 승하함에 따라 후사가 없었던 인종의 뒤를 이어 1545년 11세의 나이로 명종이 왕위에 올랐다. 국왕의 어린나이로 인하여 문정왕후가 수렴첨정을 실시하면서, 문정왕후와 윤원형 세력은 명종의 안정적 지위 확립과 권력 장악을 위하여 자신들에게 적대적인 사림세력 제거에 나섰다.[16] 당시 사간원 정언에서 이조좌랑직에 올라 활동하던 노수신 역시 윤원형 일파에게 있어 눈에 가시같은 존재였기에 예외일 수 없었다.[17] 결국 노수신은 1545년 10월 7일 파직된 후 1547년 3월 14일 유배령에 처해진다.

한편, 노수신이 유배의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도움을 주었던 윤원형 세력의 인물도 있었다. 尹春年(1514~1567)이었다. 윤춘년은 본관은 坡平, 자는 彦久, 호는 學音 · 滄洲, 繼謙의 증손으로, 1543년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1545년(명종 즉위년) 을사사화 때 친족인 윤원형에게 아부하여 대윤일파의 제거에 앞장섰고, 다음해에는 병조좌랑이 되어 윤원로 제거에 크게 노력하여 윤원형의 총애를 받고 출세한 인물이었다.

윤춘년은 노수신이 유배결정 이전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던 위기를 넘기는데 도와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때의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공과 尹春年은 한 서당에서 공부를 같이 한 벗이었다. 매일 찾아오는데 그의 속내를 알고,

"윤임은 인종의 외숙인데 武人으로 崇政에까지 올랐고, 윤원형은 문정왕후의 동생인데 사람됨이 간사하여 과거에 올라 비록 좋은 자리를 지냈으나 맑은 의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아서 銓郞·中書의 천거에는 모두 참여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士林들을 미워해서 항상 그들에게 화를 뒤집어 씌울 마음을 품었다."

16) 한춘순,「明宗代 勳戚政治 硏究」경희대학교(박사학위), 2000. 39~40쪽에 자세히 담겨있다.

17) 『연려실기술』, 제18권, 선조조 고사본말, 선조조의 명신, 『석담일기』에 이르기를 '공이 문장과 행검으로 젊었을 때부터 큰 명성이 있었는데, 과거에 장원 급제하여 淸宦 要職을 역임하니 을사년 간신무리가 그 명성을 시기하여 멀리 귀양보냈던 것인데…'라 기록되어 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번번이 이웃 친구 李敏德을 자리에 불러 춘년으로 하여금 입을 열지 못하게 하니, 마침내 李芑에게 배척당했다. 그 뒤에 춘년이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寡悔에게 살 길을 지시하려고 하였으나 민덕이 매번 곁에 있어서 말할 만한 틈이 없었으니 애석하다.” 하였다.공이 그말을 듣고 말하기를, “내가 오늘이 있게 된 것이 바로 그 덕이다. 제가 말을 해서 좇지 않으면 필시 나를 죽였을 것이요, 좇았다면 내 평생을 다 버렸을 것이다.” 하였다. 을사사화 때 춘년이 원형의 심복이 되어 화를 양성했기 때문에 수신이 죽음을 면하게 되었다.[18]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크게 두 가지로, 평소 벗으로 지냈던 노수신을 윤춘년이 구제하려했다는 사실과 이기가 윤춘년을 통해 노수신을 회유하려 했을 지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윤춘년이 노수신과의 접촉은 실패했지만, 이후 노수신이 유배를 가는 과정에서도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

노수신은 이렇듯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고수하였다. 당시 사회·정치적 문제에 직면하여 뜻을 굽히지 않았고, 그의 강직한 성품을 통해 발현되었다. 또한 이와 같은 노수신의 성품은 실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독서하며 예절을 지켰으므로 훌륭한 명성이 세상에 알려졌었다.
· 하찮은 일에는 흐릿하여 끝내 누된 적이 있지만 큰 뜻에는 분명하여 참으로 부끄러움이 없었다.[19]

예절이 바르고, 큰 뜻에 분명하여 참으로 부끄러움이 없었다는 표현을 통해 살펴보더라도 그의 강직한 신의를 엿볼 수 있는 셈이다. 결국 노수신은 1545년 9월 12일 이조좌랑직에서 체직되고, 동년 10월 7일 파직된 후 충주로 내려갔다가, 상주에서 1547년 3월 14일 순천으로 유배되었다.

1545년 10월 을사사화의 여파로 이조 좌랑직에서 파직된 노수신은 충주를 거쳐 상주로 발걸음을 옮긴다. 노수신과 관련한 기존의 연구에서 파직 후 그의 행적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관계로 유배 시점에 대한 견해들이 일치하지 않는다. 파직 후

18) 『연려실기술』, 제18권, 선조조 고사본말, 선조조의 명신, 『괘일록』
19) 『선조수정실록』 권24, 선조23년 4월 1일, 9번째기사.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유배지 배정이 祖父喪으로 인하여 1년 6개월간 연기되었다는 선행연구[20], 충주에 거처가 있었던 장인 이연경에게 내려갔다는 선행연구[21]가 존재하지만, 통일된 견해가 보이지 않아 먼저 확인해 보고자 한다.

유배시기 혼동의 시점은 총 3시기로 첫 번째, 1545년 10월 7일 노수신이 파직된 시기, 두 번째, 1546년 2월 조부 노후의 상을 치르던 시기, 세 번째 1547년 3월 14일 노수신이 유배령을 받는 시기라 할 수 있다.

먼저 1545년 9월 12일 체직된 이후, 동년 10월 7일 노수신은 삭탈관작 되었는데, 실록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전 승지 鄭源, 전 正 李若氷, 목사 李若海, 전 지평 金儲, 전 좌랑 盧守愼은 취향이 올바르지 않아 사특한 논의를 잘 내므로 다시 조정의 반열에 두어서는 아니 됩니다. 모두 삭탈 관작하소서…."[22]

노수신의 삭탈관작에 대해 언급되고 있지만, 유배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이는 그의 『소재집』의 연보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한데, 삭탈관작 후 충주로 내려간 기록[23]은 있으나, 유배령의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다음은 1547년 3월 14일 실록의 기록으로 노수신의 유배를 언급하고 있다.

"盧守愼과 丁熿은 본래 못나고 망령된 사람인데 헛된 稱譽를 내세우며, 浮薄한 무리를 고무 선동하여, 식견 있는 주위 사람들로 하여금 감히 말을 꺼내지 못하게 하여, 士習의 詭激

20) 박병익,「蘇齋 盧守愼의 『피구록』연구」『한국고시가문화연구』제29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12, 金光淳, 文璟鉉, 最丞灝, 「蘇齋 盧守愼 硏究;文學·政治·思想을 中心으로」,「한국의 철학」17,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1989.

21) 조희창,「蘇齋 盧守愼의 詩文學 硏究」,학위논문(박사), 성신여자대학교, 2010. 앞서 발표한 (조희창, 「蘇齋 盧守愼의 詩文學」『한국고전연구』제16집 126쪽, 한국한문고전학회, 2008.) 논문에서는 충주로 유배되었다고 기술되어 있으나 2011년에 발표한 논문에는 충주에 거처가 있었던 스승 이연경에게 내려갔다고 기술되어 있다.

22)『명종실록』권2, 명종즉위년 10월7일, 2번째 기사, "知中樞府事權橃, 曾在重臣之列, 懞不知是非, 多發不正之論, 不可在職。 請罷。 前承旨鄭源、前正李若氷、牧使李若海、前持平金儲、前佐郎盧守愼, 趨向不正, 好生邪議, 不可復置朝列。 請竝削奪官爵。 弘文館副應敎金振宗、咸鏡道都事沈苓, 所趨不正, 好生議論, 不可在職。 請罷。 司贍寺正黃博, 人物輕薄, 不合長官, 請遞。"

23) 노수신,『소재집』,「穌齋先生年譜」, "明宗卽位, 九月, 罷歸忠州."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함을 빚어내어서 時事를 紛亂하게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울러 멀리 유배시키소서.”[24]

이에 따르면 노수신의 유배령은 1547년 3월 14일에 내려진 것을 알 수 있다. 조부 노후의 상은 1546년 2월로 당시 노수신은 상주에서 기거하고 있던 중이었다. 파직 이후 그는 관직에서 벗어나 고향인 상주에서 삶을 계획하던 중 조부 노후의 상을 당하여 상을 치르다가 1547년 봄, 상주에서 유배령을 받았다. 그렇기에 조부 상으로 인한 유배가 지연되었다는 내용은 조부 노후가 1546년 2월 상을 당했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거리가 있다. 이런 내용들에 근거하여, 그는 파직 이후 상중 일 때 그의 죄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루어졌고, 유배령을 받았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에 보충하여 그가 남긴 순천 유배시절에 남긴 「昇平百韻」의 자료에서도 위의 내용을 뒷받침 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다.

<前略>

士習歡更鼓	선비의 풍습은 경고 소리 듣길 좋아하고
君慈分散樗	임금의 자애는 산저에까지 나눠 줬지만
薄氷宜閉閤	박빙을 밟듯 문 닫고 반성함이 마땅해
一畝便歸鉏	선영 아래 한 이랑 농사나 짓자 했었지
凶變遭期服	그러던 중 할아버지의 상을 당하여
艱虞窆故岨	어려운 가운데 선영에 장사 지내고는
尙期陪定省	부모님 봉양이나 하려고 기약했지만
遽失老樵漁	문득 시골에서 늙을 꿈을 잃게 되었네
傍砌凋三莢	섬돌 옆의 명협 세 잎이 떨어지고
中田化幾駕	두더지가 메추리로 거의 변할 즈음에
譴嚴奔驛馹	엄한 유배령이 역참을 달려온지라
飛急會雝渠	옹거가 급히 날아와 함께 모였는데[25]

24) 『명종실록』 권4, 명종2년 3월14일, 2번째 기사, “盧守愼、丁熿, 本以踈戇愚妄之人, 枉挾虛譽, 鼓扇浮薄, 使有識傍觀者, 不敢發言, 釀成士習之詭激, 以致時事之紛亂。 請竝竄黜。”

25) 노수신, 『소재집』 권2, 「詩」, 昇平百韻, (임정기譯, 『국역소재집』 2권책, 44~45쪽)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後略>

위 시의 3연의 蓂莢은 瑞草의 이름으로 堯 임금 때 명협이란 서초가 뜰에 났는데, 매월 초하루부터 15일까지는 매일 한 잎씩 나오고, 16일부터 그믐날까지는 매일 한 잎씩 떨어졌으므로 이것을 인하여 책력을 만들었다고 한다. 여기서 명협 세 잎이 떨어졌다는 것은 곧 유배령을 받은 날이 1547년 3월 18일이었음을 의미하는 것[26]으로, 『조선왕조실록』의 3월 14일 유배령 이후 노수신이 상주에서 유배령을 받은 날은 4일 후인 3월 18일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노수신의 유배는 왜 파직된 지 1년 6개월 뒤에 논의된 것일까? 노수신이 정언에 있을 때 정승 이기를 탄핵했던 사건은 앞서 기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1년 6개월 뒤 1547년(명종2) 3월 13일 대사헌 李薇(1484년~?)의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國賊을 제거한 뒤로 아직 남아서 목숨을 保全하고 있는 자가 많습니다. 죄는 같은데 벌은 달라서, 王法이 시행되지 않는 바가 있으므로 物情이 오래될수록 더욱 답답해 하니, 지은 죄대로 벌을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27]

사림의 정미사화 때 치죄에 관한 불공정성에 대해 이야기를 꺼낸 것이다. 당시 윤임, 유관, 유인숙은 사사되었으나, 정미사화 때 처벌 받은 이들 중 부당한 처벌을 받은 자가 많다는 말이었다. 관련된 예로 백인걸은 윤임의 편을 들다가 을사년에 파직당하고, 정미년에 귀양을 가게 되었는데, 그 까닭에 대해 백인걸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나는 오랫동안 지방 수령으로 있어서 대윤·소윤 문제에 참견한 적이 없고, 또한 임백령[28]과 옛 친구이기 때문이라."[29] 즉, 직접적으로 노수신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의해 죄의 공정성이 떨어지는 바,

26) 임정기譯, 『국역소재집』2권책, 45쪽, 104번 주석 참고.
27) 『명종실록』권5, 명종2년 3월13일, 3번째 기사.
28) 소윤측 세력으로 을사사화에 함께 가담하였다.
29) 『연려실기술』, 제10권, 명종조 고사본말, 을사사화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후환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자들은 좀 더 엄중히 처벌하여 윤원형 세력의 입지를 좀 더 공고히하기 위한 의도가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대사헌 이미는 좌의정 이기의 형제로, 지난 날 노수신이 정언으로 있었을 때 이기를 탄핵하였으므로, 당시 명망 높았던 노수신 역시 그 대상에서 피해가지 못했다. 결국 다음날 1547년(명종2) 3월 14일 유배령이 내려짐으로서 노수신의 유배가 확정되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 을사사화와 상주낙향

1545년 9월~1547년 3월까지 파직 이후 노수신의 생활은 그의 『소재집』의 詩를 통해서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시의 형태로 표현되어 있어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詩 속의 표현된 글을 통해 그의 여정 모습과 이동경로, 상주에서 생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의 1년 6개월가량의 모습을 <표2,3>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2>노수신의 상주 낙향길 경유지

시기		경유지	내용
1545년	9월	한양	아우의 배웅을 받음
	10월	충주	장인을 만남(추정)
		충주 연주현	주현에서 자는데 풍속이 순박해 사람들이 가여워함
		상주 흑석마을	산속에 위치한 마을로 저녁 무렵에는 비가 왔으며, 말을 타고 이동, 노복을 대동함
		상주 수청정마을(추정)	떳집 오두막에서 묵음, 버섯나물 밥상을 대접받음
		상주 화령현의 원천	원천 도착

<표3>노수신의 상주생활

시기		내용	비고
1545년	10월	①원천의 향당 사람들이 술을 가져와 어울림 ②아우가 서울에서 내려옴	
	11월	십년만에 아우와 함께 利生院의 선영을 배알함 동짓날. 원천에서 아우와 함께 성묘를 함	
		11월15일 이후. 上草幕에서 자면서 남헌 선생[30]의 방광사운에 次함	상주 관음사 여행
		승려 사묵, 혜흡과의 교유	
	12월	①승려 도전, 신명 상인과의 교유 ②강유선에게 시를 부침	
1546년	1월	입춘일. 아우와 술을 마심	
		한양으로 아우가 돌아감	
	2월	조부 노후 喪을 당함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7월	조부상으로 원천의 여막에서 가군과 여묘살이를 함	조부상으로 부친이 상주로 내려옴.
		원 상인, 승려 옥섬과의 교유	
	10월	어머니를 만나러 충주로 올라가는 길에 사곡마을에서 하룻밤을 보냄	조부상을 계기로 가족이 모두 상주로 내려오는 것으로 추정되며 모친을 만나러 충주로 향함.
		새벽에 수청정마을을 지나감	
	11월	눈보라로 인하여 조그만 여관에서 묵음	
		어머니와 아우를 만나 충주 금탄 가에서 유숙함	
		상주로 내려오는 길로 추정되며, 괴산 인산역마을에서 하룻밤 묵음	
1547년	1월	산중의 띳집 암자에 머무르던 중, 1539년, 풍악을 유람할 때 수행하던 승려 조담이 찾아옴	
		강유선을 만남	
	2월	솔면의 인가에서 묵으면서 하루 동안 비에 막혀 나가지 못함, (상주 속리산 서쪽 15리쯤 위치한 용화솔면촌, 솔면)	
		舍人 丁熿의 운에 화답하여 부침	
	3월	《덕양유고》 31)열람 *중종때 문신 기준(奇遵)의 저서	
		한식일. 상주의 어느 산속에 있었던 것으로 보임	

노수신은 파직 후 상주 낙향길에 오른다. 낙향길에 그는 충주를 들려 간 것으로 확인되는데[32], 그의 스승이자 장인이었던 이연경이 충주에서 거처하였던 점을 미루어 볼 때 충주 여정의 목적을 짐작할 수 있다. 관직 진출 이후 드물었을 안부인사와 본인의 파직 소식을 전하려했을 것이다.

충주 여정길에 배웅은 아우 노극신이 함께하였다.[33] 을사사화의 여파는 노극신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노수신의 파직과 함께 노극신 또한 금고처분 당하여 관직에 나아가지 못하다가 노수신이 해배될 때야 비로소 관직진출이 허용되었다.[34]

30) 宋代의 도학자인 장석의 호
31) 조선 중종 때의 문신 奇遵의 저서
32) 노수신, 『소재집』, 「穌齋先生年譜」, 明宗卽位, 九月, 罷歸忠州, 노수신은 9월 12일 체직되고, 10월 7일 파직되었는데, 파직 이전 9월에 상주 낙향길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33) 노수신, 『소재집』 권1, 「詩」, 別舍弟, "馬跼行仍緩, 鴿飛涕屢揮, 松楸洞深處, 寂寞閉柴扉."
34)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곧이어 노수신은 충주를 거쳐 상주행에 오른다. 정확한 출발 시기는 확인되지 않지만, 그가 남긴 시의 대략적으로 기록된 시기를 바탕으로 추정해보면 10월의 어느날 상주 낙향길에 올랐을 것으로 보인다. 이동경로를 살펴보자면, 충주 연주현 → 상주 흑석마을 → 상주(추정) 수청정마을을 거쳐 상주 화령현의 원천에 도착하였다.

숙박은 보통 민가를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흑석마을을 지나고 나서부터는 인가가 드물어서 노복과 함께 굶주림에 힘들어했다.[35] 정확한 위치는 확인이 되지 않지만, 여정 상 상주의 한 마을로 추정되는 수청정마을의 띳집 오두막에서 하룻밤을 묵을 적에는 버섯나물 찬을 대접받기도 하였다.[36] 이후 상주 화령현의 원천에 도착한 노수신은 향당의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37]

노수신은 상주 낙향 후에 약 1년 6개월가량을 상주에서 생활하였다. 그의 상주 생활에서 주목되는 점은 다음의 세 가지 측면으로 ①선영수호, ②관음사 승려와의 교유, ③조부상과 모친과의 재회이다.

먼저, 그해 11월에 아우 노극신이 상주로 내려옴에 따라 상주의 한 지명으로 추정되는 利生院의 선영을 찾아갔다. 상주에 내려올 적 부친의 당부를 살펴보면, 상주 낙향의 목적을 짐작할 수 있는데, '떠나올 때 경계하신 아버님 말씀을, 하나하나 가슴속에 새기었노라, 오랫동안 성묘 못한 걸 깨달았으니, 너희 형제가 나를 대신할 순 있지만'[38]를 통해서 살펴보면 선영수호가 상주행의 큰 목적이었을 것이다.

상주의 이생원과 원천은 노수신의 선조가 모셔져 있는 곳으로, 둘 중에 이생원을 먼저 찾은 것으로 보아 이생원이 노수신의 윗대 선조를 모셔놓은 곳으로 판단된다. 동짓날에는 원천의 선영에 아우와 성묘를 하였다. 성묘를 하기에 앞서 점을 쳐서 길일을 확인하고, 목욕재계 후 상차림은 노비의 손을 거치기보다 손수 상을 차렸

35) 노수신, 『소재집』 권1, 「詩」, 口占, "峽中盡日邁, 望望無人來, 羸馬齕枯葦, 飢烏聲漸哀", (임정기譯, 『국역소재집』 1권책, 167쪽)
36) 노수신, 『소재집』 권1, 「詩」, 水靑亭里夜坐, "萬疊雲山裏, 茅茨覆一杠, 亂編蓬作壁, 斜綴苫爲窓, 蕈菜能供案, 松明可替釭, 擁衾費吟肺, 時聽野言哤", (임정기譯, 『국역소재집』 1권책, 168쪽)
37) 노수신, 『소재집』 권1, 「詩」, 鄕黨持酒取尉, (임정기譯, 『국역소재집』 1권책, 174쪽)
38) 노수신, 『소재집』 권1, 「詩」, 至日掃墳遠川 示弟, "臨行鯉庭辭, 歷歷膺上錄, 掃灑覺久缺, 爾兄弟可贖" (임정기譯, 『국역소재집』 1권책, 180쪽)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다. 淸酌庶羞로 상차림을 하고, 선영의 축복이 있기를 바라며 토지신께 감사를 드렸다. 당시 성묘를 지내던 모습은 다음의 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投珓卜良辰	산통을 던져 좋은 때를 점쳐 보니
陽動日正旭	동짓날 아침의 정히 해돋이로다
惕若穆將事	삼가서 제사를 공경히 모시고자
蘭芳共沐浴	향기론 난탕에 함께 목욕을 하고
盥澡卽陳設	손을 씻고 즉시 상을 진설하노니
豈敢保老僕	어찌 감히 노복을 시킬 수 있겠는가
饌燔西海魚	제찬은 서해의 생선을 구워 갖추고
飯剝北疇粟	멧밥은 북쪽 논의 벼를 도정해 짓고
舊摘柿尚紅	예전에 따 놓은 홍시는 아직 빨갛고
新醅盞仍淥	새로 빚어 거른 술잔은 맑기도 해라
周旋儀靡愆	주선하는 의절은 어긋나지 않으나
只嘆誠不篤	정성이 독실치 못함이 한탄스럽네
熏熏幸居歆	기뻐하며 다행히 편안하게 흠향하사
粗伸此嘉告	좋은 말씀을 대략 고해 주시도다
雨露謝后土	우로의 은택을 후토께 감사하며
淸庶亦相續	청서가 또한 서로 이어지도다[39]

1545년 11월 15일 중종대왕의 연일에는 관음사 수락암에 있었다. 산 꼭대기에 올라 상초막에서 자면서 남헌 선생의 방광사운에 次하기도 하였다. 남헌은 敬문제로 주자와 자주 논쟁을 벌였던 송나라의 철학자였다. 그는 이후에 적수암을 거쳐 관음사에서 한 달 가량 묵었다.

그의 행적상 특이한 점은 승려들과의 교유관계가 깊다는 점이다. 관음사의 승려

39) 노수신, 『소재집』 권1, 「詩」, 至日掃墳遠川 示弟 , (임정기譯, 『국역소재집』 1권책, 180~181쪽)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로 보이는 이들은 영운, 사경, 사묵, 청순, 혜흡, 도전, 신명 상인 등으로 보인다. 이 중 혜흡은 8년 전, 도전은 10년 전, 신명상인 역시 과거 봉암사에서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이었다. 과거 풍악산을 유람할 적에도 보현암, 수선암, 보덕굴, 정양사, 천진대암, 천덕암, 묘덕암, 원통암, 수미암, 마하연암, 대장암, 계조굴, 상개심암, 불정암, 유점사, 장안사, 표훈사, 대송라암, 오현굴, 이엄굴[40]의 많은 암자와 사원을 거쳤으며, 이는 그가 과거에 충주에서 受學하던 시절 灘叟 李延慶, 陰崖 李耔, 十淸軒 金世弼의 영향을 받아 양명학을 접할 기회가 있었을 것으로 보아 사상적으로 좀 더 자유로웠을 것이다.[41] 일찍이 기묘사림의 이연경, 이자, 김세필이 정계에서 물러난 후 충주에서 자주 왕래하던 시절에 노수신이 이연경에게 수학했기 때문이다.

선초 숭유억불 정책은 불교에 대한 사회적 위상을 약화시키는 것을 바탕으로 시작되었다. 태종과 세종대에 이르러 불교교단이 축소되었으며, 건국주체의 신진사대부들은 배불론을 내세웠다. 고려 후기에 나타난 불교의 사회적 폐단과 더불어 불교가 출가를 통해 孝와 忠의 도리를 저버려, 인륜을 저버리고, 국가에 해를 끼친다는 것이었다. 유학 이념의 중심인 충과 효를 두고서 인륜적 도를 논할 수 없음이었다.

하지만 불교에 대해 꼭 무조건적인 비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불교가 국가 및 사회문제와 윤리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현실적 공효론' 또한 유학자들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서거정은 "불교의 청정 담박함과 과욕, 양심의 설은 유교와 비슷함으로 불교에 미혹되지는 않지만 심하게 배척하지도 않는다."라고 하였고, 이수광은 "불교의 즉심견성과 유학의 존심명리가 마음을 주로 한다는 점에서 같지만 마음의 작용이 다르므로 근원을 같이 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도 "이단이 유학의 도에 해가 되지만 불교의 견심은 마음을 놓는 자의 경계가 되고 살생을 금하는 계율은 죽이기 좋아하는 자의 경계가 된다."고 하였다.[42] 이는 조선 초기의

40) 노수신, 『소재집』,권1; 1539(중종34) 4월부터 풍악산을 유람하며 남겨놓은 시 속에 기록되어있다.
41) 임정기譯, 「국역 소재집1」,한국고전번역원, 2013, 20쪽, 신향림, 「양명학자 노수신의 사상과 문학」 참고.
42) 김방룡, 「조선시대 불교계의 유불교섭과 철학적 담론」, 「충남대학교 유학연구」 25집,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011.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관학자들이 格物致知보다는 주로 敬의 수양을 강조했던 점과도 맥락이 통한다.[43]

한편 관음사에 있을 때 舟川 康惟善에게 시를 지어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기도 했다. 강유선(1520~1549)의 본관은 信川, 자는 元叔, 호는 舟川으로 아버지는 昌原都護府使 顥이며, 어머니는 東萊鄭氏로 헌납 士傑의 딸이다. 강유선은 일찍이 노수신과 이연경 밑에서 함께 受學한 사이로, 강유선 역시 이연경의 여식과 혼인하여 둘은 동서지간의 사이였다.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밖으로 궁달이 되는것에 대해선, 안으로 손익을 꼭 해야 하고 말고, 약은 팔을 상한 데서 증험을 얻고, 냉채는 뜨거운 국 때문에 징계한다오, 운명이라 하늘도 사람도 원망 않나니, 더욱 두려워 조심하는 데서 구해야지, 떳떳한 말도 반드시 겸손하게 하고, 사소한 행실도 반드시 삼가야 하리.'[44]

관음사를 나가는 길은 겨울이라 날이 거셌다. 얼어 있는 길 탓에 말은 넘어지기를 반복하고, 동복은 산을 바라보며 걱정했다. 하지만 뒤따르는 아우가 있었기에 내려오는 길이 외롭지는 않았다.

입춘일에 아우와 술을 함께 하였지만, 1546년 정월에 아우가 돌아가고 나니 혼자 남은 마음에 술과 시를 벗 삼아 지냈다. 그해 2월에 조부 상을 당하고, 7월에는 가군과 함께 원천에서 여묘살이를 하던 중, 10월쯤에 다시 충주 쪽으로 여정의 길에 오른다. 이 후 충주 금탄에서 모친과 아우와의 재회가 이루어지는 점으로 보아 어머니를 모시러 올라가는 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초겨울 어머니를 모시러 가는 길은 쉽지 않았는지 그 힘든 여정을 시로 남겨두었다.

我行當初冬	나의 여정이 초겨울을 당했는지라
是日大風雪	이날은 눈보라가 크게 몰아치는데
小店依高崗	높은 언덕에 자리한 조그만 여관은
牖壁太半缺	들창과 벽이 태반이나 이지러졌네

43) 김홍경,「조선초기 관학파의 유학사상」, 145~156쪽, 한길사, 1996.
44) 노수신,『소재집』권1,「詩」, 奉寄康君 三十韻, "於外爲窮達, 其中乃損增, 藥從傷臂驗, 虀笑熱羹懲, 命矣難尤怨, 求諸益戰兢, 出言庸必遜, 修行細猶矜", (임정기譯, 『국역소재집』1권책, 202~210쪽)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二更奴已鼾　　이경에 노복은 이미 코를 골며 자고
三更馬空齕　　삼경 밤에 말은 빈 입맛만 다시누나
漫漫苦夜遙　　지루하여라 몹시도 긴긴 밤에
月星但明滅　　달빛 별빛만 깜빡거리는구려

縮爲凍龜形　　언 거북처럼 목을 움츠리고 있을 제
衣裳冷勝鐵　　의복은 무쇠보다 더 차가워
我鼻洟長垂　　내 코에선 콧물이 줄줄 흐르고
我肌膜盡裂　　내 살갗은 모두 쩍쩍 갈라졌네

不憂我血壅　　내 핏줄 막힘은 걱정하지 않으나
乍嫌我骨折　　문득 내 뼈가 부러졌나 의심도 하네
奈何活底物　　어찌하리오 살아 있는 물건은
不火愈自熱　　불이 없어도 절로 뜨거워짐을[45]

위 시에 따르면 초겨울이라 눈보라가 크게 몰아쳤던 까닭에 높은 억덕에 자리한 조그만 여관에서 노복과 하룻밤을 묵었다. 극심한 추위에 콧물이 줄줄 흐르고 살갗이 쩍쩍 갈라져 그 여정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단편적으로 보여준다. 그는 모친과 아우와의 재회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남겨두었다. '눈에 가득한 건 세상의 풍진이요, 걱정거리는 도로의 험난함일세, 장오는 탑계의 들판을 지나왔고, 포구의 익수는 금탄에 숙박하네, 늙은 어머니는 자식 병을 걱정하고, 파리한 형은 아우의 안부를 묻네, 이제부턴 내 고장을 즐기게 됐으니, 하늘 뜻이거니 서로 위로하자꾸나.'[46] 그가 남긴 글을 통해 힘든 여정 끝에 재회는 그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전까지의 기록에서는 부모님이 모두 한양에 계신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 시기 이후 순천에서 쓴 시에서는 부모님이 모두 상주 화령현에 계신 것으로 보아

45) 노수신, 『소재집』 권1, 「詩」, 瓷店, " (임정기譯, 『국역소재집』 1권책, 249쪽)
46) 노수신, 『소재집』 권1, 「詩」, 迎陪北堂泊金灘 灘上留宿 蓋有待也 時舍弟亦在 夜間口占 十一月, "滿目風塵在, 關心道路難, 檣烏過塔野, 浦鷁宿金灘, 親老憂兒疾, 兄羸問季安, 從今樂吾土, 天意且相寬", (임정기譯, 『국역소재집』 1권책, 249쪽)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조부상을 계기로 부모님은 상주로 거주지를 옮긴 듯하다. 시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念親衰以病　　생각하면 어버이 쇠하고 병드시어
溫凊悶凉溽　　다습게 하고 서늘케 할 일이 걱정되니
顧汝季當歸　　다만 너 아우는 의당 집에 돌아가서
晨昏請席褥　　조석으로 잠자리 잘 살펴 드리거라[47]

② 老病吾親在　　늙고 병든 우리 어버이 계신 곳은
尙州縣化寧　　상주의 화령현이라네
鴈辭蘇武繫　　기럭은 소무의 편지를 사절하거니와
犬豈士衡聽　　개는 사형의 개처럼 말을 잘 들으랴[48]

①의 시는 아우 노극신과 원천에서 성묘를 지낼 적에 지은 시속에 담긴 내용으로 아직 이때는 조부상을 치르기 전으로 노극신에게 집으로 돌아가 부모님을 잘 모시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집은 한양의 집을 말하며, ②는 노수신이 순천 유배 중에 지은 시로 부모님은 상주 화령현에 계시다는 것을 통해 거주지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충주에 머물렀을 때는 강유선이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왔다.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마음에 시를 한 수 지었다. '삼동의 학문을 놓아 버린 이후로, 하룻밤의 담소를 생각해 왔었네, 마음은 금석처럼 서로 변함없건만, 구름과 나무는 동남으로 막혔었지.'[49] 강유선과 만남이 있은 후 상주로 오는길에 솔면의 인가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3월에는 상주에서 기준의 《德陽遺稿》를 열람하였다.[50] 기준은 1513년(중종8)에 生員・進士 兩試에 합격하였으며, 이듬해 別試에 급제하여 관직

47) 노수신, 『소재집』 권1, 「詩」,奉寄康君 三十韻至日掃墳遠川 示弟 四百字, (임정기譯, 『국역소재집』 1권책, 184쪽)
48) 노수신, 『소재집』 권1, 「詩」, 成世雲還 憑寄家書, (임정기譯, 『국역소재집』 1권책, 322쪽)
49) 노수신, 『소재집』 권1, 「詩」, 喜聞康元叔還自一善 聊短述二首錄奉, "自棄三冬學, 相思一夜談, 心肝徹金石, 雲樹限東南", (임정기譯, 『국역소재집』 1권책, 254쪽)
50) 노수신, 『소재집』 권1, 「詩」, 閱德陽遺稿.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에 올라 기묘사화에 연좌되어 온성으로 귀양 갔다가 사사된 사람이었다. 후에 인종대 강유선의 건의로 관직이 회복되었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는 파직이후 유배령을 받기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상주에서 머물렀다. 지내는 동안 관직에 대한 미련보다는 성묘를 하거나, 관음사에서 지내며 휴식의 시간을 가졌다. 도중 조부의 상은 가족이 한양에서 상주로 거처를 옮기는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Ⅲ. 순천 유배생활과 활동

1. 유배길과 유배지 순천

1547(명종2) 3월 14일 유배결정이 내려진 이후 동월 18일 노수신은 상주에서 유배령을 받았다. 그가 상주에서 유배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窮山對寒食	깊은 산중에서 한식날을 만나니
三月來陰風	삼월인데도 찬 바람이 부는구나
壟草將舒綠	언덕 위의 풀은 파릇파릇해 가는데
巖花未放紅	바위틈의 꽃은 아직 피지 않았네[51]

어머니를 모시고 내려온 후에 상주에서 한식을 보냈던 시기는 그가 유배를 받은 시기와 가까운 시기로 시기상 상주였을 것으로 보인다. 유배를 떠나기 전에는 형제가 함께 모여 아버지를 찾아뵈었다.

유배지는 순천으로 상주에서 동월 22일[52] 출발하여 노복을 대동한 채, 아우의 배웅을 받으며 말을 타고 순천으로 향하였다. 노수신은 정 6품 이조좌랑이었기에 압송관은 羅將이 담당했다. 하지만 유배인이 관직자일 경우 실질적으로 압송관이 동행하는 경우는 드물었기에 노비와 함께 순천까지 이동했을 것으로 본다.[53]

유배길에 필요한 노자는 집에서 어느 정도 챙겨주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유배길의 노자는 본인이 직접 충당하여야 해서, 관직자의 경우 경유지 고을에서 말과

51) 노수신,『소재집」권1,「詩」, 寒食 在遠川, (임정기譯, 『국역소재집』1권책, 276쪽)
52) 앞의 책」권1,「詩」, 二十二日, 謫向順天, 今遇其日, 感焉, “去歲玆辰跪北堂, 訓辭盈耳更洋洋, 爾心忠孝惟吾識, 人事乖違亦士常, 却爲晨昏方自怨, 肯將溝壑或能忘, 順珍不必論遐邇, 地上無遊是有方”, (임정기譯, 『국역소재집』2권책, 297쪽) 노수신은 1547(명종2년) 3월 22일에 순천 유배길에 올랐음을 이 시를 통해 밝히고 있다.
53) 김경숙,「조선시대 유배형의 집행과 그 사례」『사학연구』55,56 369~393쪽, 한국사학회, 1998에서 밝히고 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음식을 제공해주도록 되어 있었다.[54] 노수신 역시 관직자로서 대접을 받았으며, 그가 진도 이배 당시 남긴 기록에 '어머니는 명주실로 옷을 지어 주시고, 아내는 금비녀 팔아 노자를 주었지'[55]의 내용을 통해 유추해보면 순천 유배길 역시 본가에서 지원해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노수신의 정확한 유배지까지의 일정과 경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하지만 '雲峯에서 김수재에게 사례하다'[56]라는 詩를 통해 살펴보면 상주에서 남원 운봉을 거쳐 순천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토대로《增補文獻備考》[57] 輿地考의 상주~전라도에 이르는 통행로를 살펴보면 그의 유배길의 모습을 어렴풋이 추정이 가능하다. 기록에는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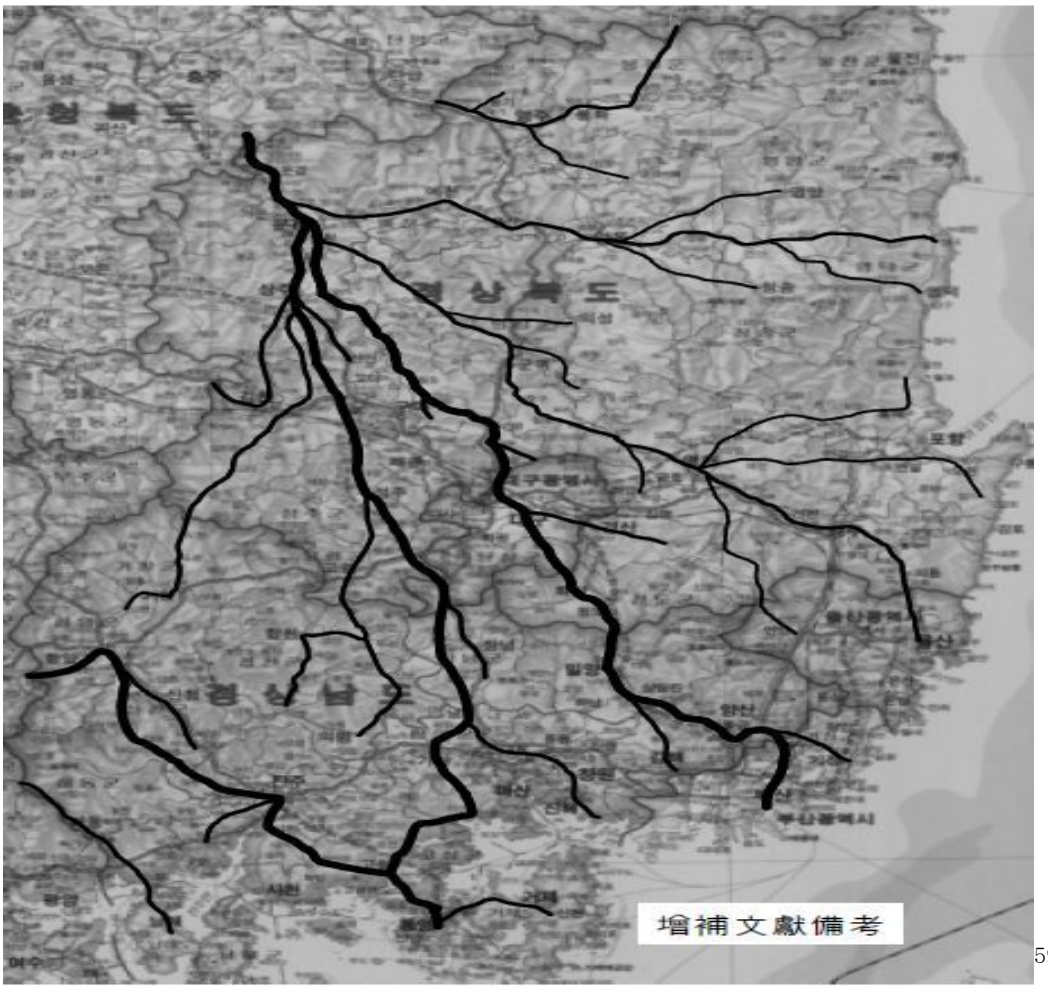
상주에서 서남쪽으로 안의에 이르는 길
상주에서 안곡역까지 40리, 개령까지 30리, 김천까지 20리, 지례까지 40리, 죽곡까지 40리, 거창까지 60리, 안의까지 40리[58]

한양에서 남쪽으로 통영에 이르는 통영로의 지류에서 상주를 시작으로 나타난 통행로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구체적인 지명과 경로, 거리를 비교적 자세히 표현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도상에서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다.

54) 김경숙,「조선시대 유배형의 집행과 그 사례」『사학연구』55,56 369-393쪽, 한국사학회, 1998 참고
55) 노수신,『소재집」권2,「詩」, 對燈謾興, "慈應縫繭線, 婦爲賣金釵",(임정기譯, 『국역소재집』2권책, 105쪽)
56) 노수신,『소재집」권1,「詩」, 雲峯 謝金秀才
57) 1770년 영조대 왕명에 의해 채제공 등이 중심이 되어 만든 《東國文獻備考》의 개정판으로, 《동국문헌비고》가 단기간에 만들어져 내용이 소략하고 오류가 많아, 정조대《增訂東國文獻備考》로 재편찬되었다가, 1903년~1908년 총 16고(考) 250권으로 재 편찬된 조선시대 문물제도와 관련된 해설서라 할 수 있다.
58) 『增補文獻備考』권24, 輿地考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59)

지도상에서 확인되는 길을 통해 상주에서 남원 운봉까지의 도로를 재구성 해보자면 큰 지명 순으로 상주→김천→성주 서쪽 방면→거창→함양→남원 운봉의 행로를 살펴볼 수 있다. 위의 경로는 현재의 도로에 비추어보았을 때 상주에서 순천까지 약233km(약581리) 가량의 행정으로[60] 조선후기 유배 길의 하루 이동 거리를 비추어보면 하루 평균 80~90리를 가도록 규정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7~8일 가량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노수신의 유배길 모습은

59) 도도로키 히로시, 「조선시대 邑治와 관도의 연결 유형에 따른 교통로의 상징성 : 경상도의 사례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11권 제3호 통권31호, 한국지역지리학회, 2005.
60) 김경숙, 앞의 논문 참고.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남원 운봉에서의 기록만 남겨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 그 경로의 예측은 사실상 쉽지 않다.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실제 유배길 일정은 그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점과 그의 유배길에 노비를 대동하고 있었고, 중간에 운봉에서 친구 김 수재를 만나기도 하여 그보다 며칠 더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순천 유배길의 배웅은 아우 노극신이 함께 하였다.[61] 또한 유배 길에 친구 金秀才를 만났다.[62] 김 수재가 누구인지 정확히 확인은 되지 않지만 남원을 지날 적에 어진 마을에서 술과 고미라는 볏과 식물인 고미를 대접 받았으며 떠날 적엔 《양양집》을 선물로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순천으로 향하는 길에 정확한 위치는 확인되지 않지만, 강유선의 서신이 도착하여 답하였다. '우리 군왕의 명을 감히 지체할 수 있으랴, 부모 앞에 참은 눈물이 남몰래 옷깃 적셨네, 언덕 위의 나무꾼 말은 듣지 못했거니와, 도중엔 어찌 친구의 책망인들 받았으리오, 병든 이 몸 천지간에 남명은 멀기만 하고, 시름겨워라 별 중에 북두는 우뚝하구려, 후일 구천에서 응당 서로 괄목상대하리니, 새 지식 배양하기를 더욱 정미하게 하게나.'[63] 순천까지의 유배길은 멀고, 가족을 두고 떠나는 마음은 쉽지 않아 벗에게 하소연이라도 해야 했다.

유배지로서의 순천은 풍족한 고장이었다. 노수신은 순천에 대해 '인심과 풍속은 좋았으며, 어염은 풍요롭고, 땅은 비옥하여 사방이 논밭이라, 가난한 백성은 열에 두셋뿐이었다.'[64]고 남겼다. 또한 그가 남긴 「승평백운」에서는 '순천이 남쪽 바다와 인접하여 축축하고 더운 기운의 비가 가을에도 계속 내렸으며, 백성들은 제비쑥을 즐겨 먹고, 지방 장관을 상징하는 송골매가 그려진 깃발은 백성들의 볼거리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깃발은 상징적이기도 하였으며, 소중한 것으로 지방관의 행차

61) 노수신, 『소재집』 권1, 「詩」, 道中別舍弟, "…泉下逢顔面, 人間決死生, 遄歸侍二老, 明報子心平", (임정기譯, 『국역소재집』 1권책, 282쪽)
62) 노수신, 『소재집』 권1, 「詩」, 雲峯 謝金秀才, (임정기譯, 『국역소재집』 1권책, 285쪽)
63) 노수신, 『소재집』 권1, 「詩」, 答寄舟川, "吾君之命敢行遲, 忍淚趨庭暗濕衣, 岸上不逢樵叟語, 道中安得故人譏, 病身天地南溟遠, 他日九泉應刮目, 新知培養轉精微", (임정기譯, 『국역소재집』 1권책, 287쪽)
64)노수신, 『소재집』 권1, 「詩」, 隣老來話, "悲我遠遷來, 爲談風俗好, 魚鹽亦旣饒, 土沃實惟寶" (임정기譯, 『국역소재집』 1권책, 290쪽), 『국역소재집』 1권책, 321쪽, 「詩」, 紀實, "巨魚滄海出, 脩竹碧霄參, 土沃方阡陌, 民貧十二三"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등을 통한 깃발의 위엄은 백성들의 볼거리였던 것으로 보인다.[65] 그렇다면 과거 순천은 어떤 곳이었을까? 순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聖朝가 일어나자 문화가 밝고 무력에 위엄이 있어 섬 오랑캐가 貢物을 바쳐 화친하니, 변방 백성들이 베개를 높이 베고 생업을 즐길 수 있었다. 이에 이 府도 충실하여져서 폐허는 성과 해자가 되고 쑥대밭이 변하여 閭井가 되어, 인구의 많음과 物産의 풍부함이 남쪽 고을에서 제일이 되었다.[66]

『동국여지승람』 궁실조의 기록으로 순천의 풍요로움에 대한 기록이 잘 나타나 있다. 또한 『인조실록』에서 살펴보면 順天府使 辛啓榮가 빈객이 되었을 때 병을 핑계대고 교묘히 피해다니다가, 풍요로운 고을의 수령이 되어 그 소원을 이루었다고 파직하여 그 죄를 다스리라고 상소를 올린 사례[67]도 있었다.

조선시대에 순천에 유배된 이는 총 12명[68]으로, 대체로 전라도의 도서지역이 유배지로 많이 선정된 것에 비하면 적지 않은 수가 순천으로 유배를 떠난 것을 알 수 있다.

유배지의 결정은 죄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었는데, 고을의 유배자 수용 능력 역시 고려하였다.[69] 재해가 심한 고을과 섬 지역에 대한 유배자 제한 조치가 조선후기 정조대에 보면 나타나는데, 유배인의 경우 생계는 해당 고을에서 해결해주었기 때문에 재해가 심할 경우 유배자 처우에 있어 큰 문제가 되었다.[70] 고을의 입장에서는 먹여 살려야 하는 인구가 증가하는 것이었으며, 이는 재정의 손실이었기 때문이

65) 노수신, 『소재집』 권2, 「詩」, 昇平百韻, "…原田甘嗜堇, 民庶盛觀旗, 瘴雨秋仍濕, 腥煙曉不祛…", (임정기譯, 『국역소재집』 2권책, 20쪽)
66) 『동국여지승람』, "聖朝蔚興 文昭武威 島夷獻琛 而輸款邊 氓奠枕以樂業 而是府廼克實 立墟爲城池 化蒿萊爲閭井生齒之繁物産之 富能爲南州之甲"
67) 『인조실록』 권42, 19년 3월 6일, 1번째 기사.
68) 김경옥, 「조선시대 유배인의 현황과 문화자원의 활용: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역사학연구』 제40집, 호남사학회, 2010에서 밝히는 순천 유배자는 11명으로 밝히고 있는데, 李淮, 金公寶, 安克頓, 李千年, 李世番, 張任重, 盧守愼, 盧繼信, 吳始恒, 金麟至, 洪志燮이다. 하지만, 이외에 金宏弼 역시 순천으로 이배된 인물로 유배자는 12명으로 보인다.
69) 정연식, 앞의 논문, 109쪽 참조.
70) 심재우, 「조선전기 유배형과 유배생활」 『국사관논총』 제92집, 국사편찬위원회, 2000.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다. 그렇다고 양반이 유배지에 내려와서 그들이 직접적인 생계를 꾸려 나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기에, 결국 유배인은 해당 고을로서는 불청객인 셈이었다. 이런 점에서 살펴본다면, 아이러니하게도 유배지로서는 순천은 노수신의 유배생활에 무리가 없을 장소였다.

한편 노수신이 순천에서 우거한 집은 『소재집』에서 표현하기를『시경』속 墠藦에 가까웠다 한다. 땅을 닦아놓은 평지에 언덕이 이어진 지형에 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71], 보수주인의 경우 아쉽게도 이름은 확인이 어렵지만 순천 유배기간 동안 노수신과의 관계는 우호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72] 이런 점에서 살펴본다면, 노수신의 보수주인 선정은 좋은 선처를 받은 셈이었다.

당시 유배인이 해당고을에 도착하면 보수주인을 지정해주었는데, 해당 고을 수령이 보수주인을 어떻게 정해주는지에 따라 유배 생활은 크게 달라졌다.[73] 당시 유배인은 보수주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먹여 살려야 하는 입장이었기에 달가운 상황이 아니었을 것인데 우호적인 관계였으니 유배지 배정부터 보수주인에 이르기까지 좋은 대우를 받았던 것이다.

고을 수령은 유배인에게 있어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생활에 여러 가지 작용을 하게 되었다. 노수신의 진도 유배시절을 살펴보면, 수령이 정치적인 견제와 함께 "죄인이 어찌 쌀밥을 먹을 수 있단 말인가?"라고 하여 생활에 제제를 가하였던 점과 달 밝은 밤에 소재가 아이종을 시켜 피리를 불게 하였더니 이 또한 "죄인이 어찌 즐길 수 있단 말인가?"라 하여 제제를 가하였던 점[74]에 비하면 순천 유배 모습과 사뭇 대조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유배인 노수신은 단순히 운 좋게 좋은 보수주인을 만나 유배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일까? 노수신이 유배령을 받기전 조정에서는 全羅道觀察使를 새

71) 노수신,『소재집』권2,「詩」, 昇平百韻, "…僑扉近墠藦…", (임정기譯, 『국역소재집』2권책, 46쪽)
72) 노수신,『소재집』권1, 「詩」, 暮歸僑堂, "秋日江頭坐樹陰, 主人相見頗開心"
73) 정연식, 앞의 논문, 110쪽 참조
74)『大東野乘』, 涪溪記聞, "盧蘇齋守愼謫珍島, 守臣希時宰風旨, 困辱百端曰, 罪人安得玉食, 至貿粱米于山郡以給之, 一夜月明, 蘇齋使童奴吹笛, 守曰罪人安得燕樂, 囚其奴, 宣廟朝蘇齋大用, 其人遂坎坷終身, 余謫居旣久, 時事日益甚, 爲守宰者, 皆以侵辱爲能事, 廩給常絶, 粱米安可得也, 亦可以觀世變矣"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로 임명하였는데, 具壽聃(1500~1549)이란 인물이었다.[75]

구수담은 과거 계사년에 수찬 李浚慶과 함께 夜對에 입시하여, 당인이 죄없이 오래 폐출되었음을 극진하게 논란하고 거두어 서용하기를 청하기도 하였었다. 여기서 이준경은 노수신의 스승 이연경의 제자이자 종형제간으로 노수신과 동문수학한 사이이기도 하였으며, 노수신은 이준경의 조카사위였다. 구수담 이전에 전라도관찰사는 吳謙이 임명되었으나, 임명되자마자 체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기록이 주목된다.

"각도의 관찰사를 그 도의 사람으로서 임명하여 보내는 것은 여러가지로 안 될 점이 있습니다. 한 도에 사는 사람으로 관찰사와 서로 알거나 모르거나 친하거나 친하지 않거나 간에 어떤 자는 벗이라고 일컫고 어떤 자는 族屬이라고 일컬으면서 각 고을을 멋대로 돌아다니며 官府에 출입하여 중간에서 作弊하는 자가 이루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러나 감사와 수령이 서로 더불어 질문할 수 없는 事勢이므로, 수령들이 이들이 나쁘게 평할까 겁내어 신분을 확인하지도 않고 응접하여 음식 대접을 하고 선물을 주면서 오히려 미치지 못할 것을 두려워합니다. 심한 자는 갖가지로 청탁을 하고 徵求討索하여 한이 없습니다. 그 알지도 못하고 친하지 않은 자도 오히려 이와 같은데 하물며 진짜 벗이며 族親이겠습니까. 그 폐를 끼침이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76]

당시 이 상소는 호남지역을 겨냥한 것으로, 관찰사의 영향력으로 인해 폐단이 생기는 점을 이야기하였다. 이로 인하여 관찰사는 해당 지역인으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오겸은 나주사람으로, 오겸이 체직되고, 구수담이 관찰사로 올랐다. 이러한 상황은 이준경과 친분이 있던 구수담이 전라도관찰사로 오르고, 오겸은 그해 7월 順天都護府使로 임명됨에 따라 노수신이 순천에 유배되어 생활하는데 큰 이점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으로 노수신의 순천 유배길의 모습과 유배지 순천에 모습을 살펴보았다. 순천은 노수신에게 있어 풍요의 고장이었다. 순천의 넉넉함을 통한 경제적 풍요로움

75) 『명종실록』 권5, 명종2년, 3월 10일, 2번째기사.
76) 『명종실록』 권5, 명종2년 3월 8일, 3번째기사.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뿐만 아니라, 지방관의 배정부터 보수주인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여유로운 생활을 바탕으로 유배생활의 시름을 한결 덜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배에 따른 심리적 고통으로 인하여 자신의 학문과 포부를 구현함에 어려움이 따랐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서신왕래

노수신의 유배생활의 어려움은 가족과의 이별이었다. 그는 늘 가족을 그리워하며 걱정하였으며, 가족과의 서신을 통해 소식을 주고받으며 위안을 삼았다. 유배형의 경우 유배지에서 가족들이 유배인과 함께 생활이 가능하였는데, 조선시대 형률의 근간을 이루었던 『大明律』에서는 "流刑을 범한자는 처첩이 따라가고, 父祖子孫 중에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들어준다. 遷徙, 安置人의 家口도 이에 준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1449년(세종 31)에는 『대명률』의 규정에 의해 시행할 것을 명하였으며 유배인들은 조선초기부터 家屬들이 유배지에 따라와서 거주하는 것이 법으로 보장되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실제 유배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사례도 확인할 수 있다.[77]

하지만 노수신의 경우 그러하지 못하였다. 추정하기로 아내의 몸이 좋지 않았다는 점과 가족이 모두 내려와 살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그가 남긴 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有弟學未就	아우는 아직 학문을 성취 못했고
有妹粗得歸	누이는 그럭저럭 시집을 갔지만
質直憐病妻	질박 정직한 병든 아내가 가련해라
貧窶無孩提	가난한 집에 자식도 없으니 말일세[78]

노수신은 가난한 집이라 말하고 있는데, 실상은 유배 중에 노비 1명을 데리고 있다는 점과 유배지에 내려올 때 개인 말을 타고 이동하였던 점만 보더라도 경제적 어려움에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 보인다. 조선시대의 말은 상당히 고가로 소유하지

77) 김경숙,「17세기후반 儒生 李必益의 유배생활」『한국문화』제38집 p281, 규장각한국학연구소, 2006를 통해 이필익이 유배지에 가속과 함께 생활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78) 노수신,『소재집」권1,「詩」,醉時率意放筆排悶, (임정기譯, 『국역소재집』1권책, 388쪽)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못한 사대부들이 많았다. 권복이 1828년 평안도 순안현으로 귀양가면서 작성한 『서정일록』에는 말을 빌린 기록이 자세히 남아있는데, 말을 6일 빌리는데 들어간 돈은 9냥을 썼다고 한다. 짚신 가격이 4~6푼, 보통 식사 한 끼에 1전을 사용한 것과 비교해 볼 때 그 가격은 상당히 고가였음을 알 수 있다.[79] 조선후기라는 제약사항이 있지만, 조선 전기라 하여도 말의 가격은 예외가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며, 그가 가난한 집이라 표현한 경제적 어려움은 시라는 특징상 표현일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아내의 몸이 좋지 않아 충주 처가에서 지내고 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80] 그는 유배 생활 중에 가족들과 지속적으로 서신을 주고받았다. 순천 유배시절 시의 특징을 살펴보면 부모님과 아우에 대한 서신 및 시문, 그리고 장인과 처에 대한 서신과 시문이 친가와 처가의 기록으로 나뉘고 있다. 그가 남긴 시 중에서 「빙군의 서신과 아내의 편지를 얻다」와 「성세운이 돌아가는 길에 가서를 부치다」의 시제를 통해 살펴보더라도 가서와 처가로 뚜렷이 구분이 되는 가운데 처가측에 아내의 기록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이를 유추할 수 있다.

「빙군의 서신과 아내의 편지를 얻다」

完人劉待制	완인은 유 대제요
老友蔡先生	노우는 채 선생이로다
撫分眞如子	돌봐준 정분은 참으로 자식 같았고
心期不以甥	맘으로는 사위로 여기지 않으셨네
<中略>	
結髮爲夫婦	쪽 찌고 상투 틀어 부부가 되었건만
呑聲永訣離	영영 이별에 그저 흐느껴 울 뿐일세
他生猶未卜	다음 생은 다시 만날 기약 없거니와
同穴已難期	부부 합장도 이미 기약기 어렵구려[81]

79) 정치영, 『사대부, 산수 유람을 떠나다』118쪽, 한국학중앙연구원, 2014. 참고

80) 노수신,『소재집』권2,「詩」,一日。讀書忽念死迫親老 爲之憮然 情發不中 遂倣工部同谷歌 作八首, "…有妻有妻依私親…", (임정기譯, 『국역소재집』2권책, 196쪽) 이 시는 진도로 이배된 후 얼마되지 않아 남긴 시문으로 가족을 대상자로 남겨놓았다. 진도에 있을 적에 남긴 시문이기는 하지만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부인 이씨는 친정에 의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後略>

「성세운이 돌아가는 길에 가서를 부치다」

老病吾親在　　늙고 병든 우리 어버이 계신 곳은
尙州縣化寧　　상주의 화령현이라네
鴈辭蘇武繫　　기럭은 소무의 편지를 사절하거니와
犬豈士衡聽　　개는 사형의 개처럼 말을 잘 들으랴[82]

그의 처가 언제부터 충주에서 지냈는지에 대한 여부는 시로 남겨놓은 기록이기에 확인이 어려운 아쉬운 점이 있다. 하지만 노수신이 관직에 있었을 당시에는 서울에서 함께 지냈을 것으로 보이며, 순천 유배시절과 진도 유배시절을 살펴본 바로는 노수신의 유배 중에는 충주에 있었다.

한편 노수신과 처와의 사이에서는 자식이 없었다. 17세의 어린 나이에 스승의 딸과 혼인하였지만, 노수신만 바라보고 있을 처를 두고, 본인은 유배지에 내려와 있기에 자식도 없이 지내는 아내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운 마음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또한 당시 처는 몸이 좋지 않았기에 이런 상황은 유배지의 생활에 있어 마음이 더욱 무거웠을 것이다.

유배생활 중 가속에 대한 그의 걱정은 늘 이어지고 있었다. 장마철에는 아버지의 병환인 습증을 걱정하였고, 유배길에 오르기 전 아버지의 근심에 찬 어두운 얼굴을 생각하며 괴로워했다. 가문의 희망으로 추대받던 노수신이 청요직에서 물러나 유배지로 떠나게 된 사실은 부모님 뿐 만아니라 돌아가신 조부 노후에 대한 불효로 느꼈을 것이다.

조부 노후는 수차례에 걸친 과거낙방으로 응시를 포기하고 한미한 지방관직을 맡았던 인물로 기대했던 아들 鴻 또한 향시에 합격하였으나 출사에 뜻을 접고 병약한 몸으로 은거함에 따라[83] 조부 노후가 노수신에게 거는 기대는 클 수밖에 없

81) 노수신,『소재집』권1, 「詩」, 得聘君書及妻信, (임정기譯, 『국역소재집』1권책, 310~312쪽)
82) 노수신,『소재집』권1, 「詩」, 成世雲還 憑寄家書, (임정기譯, 『국역소재집』1권책, 322쪽)
83) 노수신,『소재집』권1, 「詩」, 成世雲還 憑寄家書, (임정기譯, 『국역소재집』1권책, 322쪽)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었다. 노수신의 파직 소식에 충격으로 별세하였던 점을[84] 보더라도, 노후의 심정을 짐작할 수 있다. 아우 노극신 역시 자신으로 인하여 관직 진출이 막혔다는 점과 외딴 남쪽에 홀로 있어 행하지 못하는 부모님 봉양을 맡겨둔 현실이 한없이 힘들게 다가왔다. 가족에 대해 남긴 시를 살피면 다음과 같다.

吾父年丙辰	내 아버지 연세는 병진생이신데
羸瘁自靑春	청춘 시절부터 야위고 초췌하셨고
憂居不薑桂	상중에는 강계도 못 잡수셨으니
遑望濕脚仁	각습증이 낫기를 바랄 수 있으리오
吾母年丁巳	내 어머니 연세는 정사생이신데
勞心疾未已	노심초사로 질병이 끊이지 않아
不得顧私親	친정어머니를 돌봐 드리지 못하고
萬事懷孔悝	오만 일로 걱정이 몹시 많으시네
外祖母誰依	외조모는 누구를 의지한단 말인가
三歲添者稀	삼세를 더하면 드문 나이라는데
有弟學未就	아우는 아직 학문을 성취 못했고
有妹粗得歸	누이는 그럭저럭 시집을 갔지만[85]
<後略>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괴로움의 해소는 서신을 주로 이용하였다. 상주 부모님과의 서신교류는 대략 한 달에 한 번 가량 연락을 주고받았던 것으로 보인다.[86] 찾아오는 지인이 서신을 보내주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이며,[87] 머나먼 고장에서

84) 조희창,「蘇齋 盧守愼의 詩文學 硏究」학위논문(박사), 성신여자대학교, 2011.
85) 노수신,『소재집』권1,「詩 」, 醉時率意放筆排悶.
86) 노수신,『소재집』권2,「詩, 家君寄詩二首 命和進 六月, "…病絮藜羹不願餘, 逢人那得問親疏, 却將日錄閑中閱, 二載徒擎十一書。"(임정기譯, 『국역소재집』2권책, 322쪽) 이 시는 노수신의 진도 이배 후에 다음 해인 6월에 적은 시로 '두 해에 아버님 서신 열한 번 받들었습니다.' 라고 써있는 점으로 보아 1547년부터 대략 15개월 가량이라 할 수 있다.
87) 노수신,『소재집』권1,「詩」,成世雲還 憑寄家書, "老病吾親在, 尙州縣化寧, 鴈辭蘇武繫, 犬豈士衡聽, 澤畔頭渾白, 天涯眼忽靑, 好歸成大孝, 傳札一奴星"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가족과의 서신은 순천생활의 그나마 큰 낙이 되었을 것이다. 가군은 노수신에게 시문을 지어 그의 심정을 전해 달라 하였으며[88], 술을 보내어 그를 위로하기도 하였다.[89] 이렇게 가족과의 연락은 순천 유배생활의 버팀목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유배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이었을까? 노수신의 잦은 편두통은 순천 유배 내내 그를 괴롭혔다. 이때 함께해준 이는 다름 아닌 노복이었다. 의지할 곳 없는 유배 생활, 노복과는 더 친근해짐을 느꼈다.[90] 하루는 몸이 좋지 않아 꿀을 찾았더니 노복은 대답도 없이 도망치듯 나갔다가 대야에 물고기들을 많이도 잡아왔다.[91] 노복의 충심에 처량함도 잊었다.

노수신의 일상생활은 향촌 사족의 삶과 크게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유배형을 당하였으나, 유배는 추방형으로 삶의 근거지에서 또는 권력의 중심지에서 영구히 격리시켜 놓은 것이었기에 반드시 징벌을 가해 고통을 주려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92] 노수신은 대략 한 달에 한번 정도 상주의 가족과 서신을 주고 받았으며, 충주의 장인, 아내와도 서신을 통해 안부를 물었다. 그는 늘 가족을 생각하며 그리워하였기에 지인을 통한 서신왕래는 순천 유배생활의 큰 위안이 되었다.

---

88) 노수신, 『소재집』 권1, 「詩」,家君付詩命次 製進, “才微德薄尙虛名, 墜盡平生忠孝情, 頭上照臨懸白日, 腹中光彩活丹誠, 稻風滿谷秋聲集, 竹露侵樓凉意生, 咫尺南天堪送喜, 分明有弟數擧觥”

89) 노수신, 『소재집』 권1, 「詩」,喜雨 示兪軼, “…却携千里酒, 一飮備甘辛, (庭闈送酒一甁)”

90) 노수신, 『소재집』 권1, 「詩」, 口號, “…奚奴意轉親”

91) 노수신, 『소재집』 권1, 「詩」, 九魚歌, “孤臣久病口索蜜, 我僕不對去若逸, 須臾床畔盤中實, 遽揩病目還怪詰, 果從漁人乘漲溢, 提綱得三此其一, 奴忠豈解難已疾”

92) 정연식, 앞의 논문 120쪽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3. 지역민과의 교유와 강학활동

노수신은 순천 유배기에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사람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관계를 이어나갔다. 그 대상은 순천 지역민, 승려, 학생들, 문인 인사,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 등으로 다양하다. 여기에서는 이를 ①학생, ②승려, ③지역민, ④지인으로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노수신은 뛰어난 성품과 학문적 성취를 바탕으로 순천 유배기간이 6개월이라는 길지만은 않은 시간이었음에도 후학 양성에 힘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인다. 『소재집』에 나타난 그의 순천 유배 모습을 살펴보면 유배에 따른 불안한 심리가 지속되고 있지만, 그의 학문적 성취로 인하여 학생들이 모여들었다. 일찍이 노수신은 유배 당시 이미 상당한 수준의 학업에 성취해 있었다. 기묘명신 이연경의 제자로 생원시와 진사시에 합격하여 장원 급제한 이로 의정부에 참여한 이가 많지 않았는데 그 중에 한명이기도 하였다.

당시 유배인이 단순한 죄인의 신분이 아닌 지역사회에 학문적, 사상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컸기 때문에 학문과 생활을 영위한 '또 하나의 주체'라 할 수 있었다.[93] 이런 가운데 노수신의 순천 유배는 순천 지역 주변에 소문이 파다하였을 것이다.

순천에서 노수신에게 수학한 학생들에 대해선 상세히 언급되어 있지 않다. 다만 그의 시제에 '또 셋집의 뜰에 앉아서 학생들로 하여금 운자를 내게 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 내키는 대로 쓰다'[94]라는 내용을 통해 순천에서 후학양성을 하고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시기는 가을로 노수신이 진도로 이배되는 시기가 9월이기에 가을 쯤부터 학생들을 가르친 것이 아닌가 싶다. 여름으로 추정되는 시의 한 구절을 소개하자면 '유월 한 달 내내 장맛비가 내리니, 남방의 장기가 병석에 넘쳐흐르네, 버려둔 서책은 덕

93) 이종범, 앞의 논문 참조.
94) 노수신, 『소재집』 권1, 「詩」, 又坐賃居之庭 令學子供韻 大醉放筆 十韻, (임정기譯, 『국역소재집』 1권책, 368~369쪽)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지덕지 녹슬고 머리털은 물에 감은 듯 축축하건만'[95]라 표현한 점을 보아 유배로 인하여 복잡했던 심리로 학업의 집중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데, 가을에 나타난 그의 모습은 여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 아닐 수 없었다.

노수신의 명성은 해남에도 전해졌다. 玉峰 白光勳(1537~1582)이 노수신이 순천에 있을 때 찾아왔던 것으로 보인다.

好作昇平相	순천에 승상께서 좋다하셨는데
無功卽有功	거칠기만 한 것인데 좋은 시라 하시네
自慙叨下榻	대접의 칭찬들이 몹시도 부끄러울뿐
何說贊時雍	어찌 큰 칭찬으로 들을 수 있겠습니까[96]

백광훈이 11살에 지은 시로, 시제는 '敬次穌齋相公'이다. 백광훈의 글이 순천의 노수신에게 전해져 칭찬받았던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일 수도 있으나, 백광훈의 시 특징상 次 혹은 敬次만을 사용할 때에는 같이 유숙할 경우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순천으로 백광훈이 찾아왔을 가능성 또한 높다.

노수신과 백광훈의 인연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노수신이 진도로 이배시절 백광훈이 찾아온 것이다. 백광훈이 노수신을 찾은 때는 1558(명종13)년 22세로 부인을 사별 한 후였다. 노수신에게 배움을 받고 진사시에 합격하였으나 포기하였고, 후에 노수신이 해배되어 정승에 있을 때에는 명나라 사신이 오자 노수신의 추천으로 白衣製述官이 되어 詩才와 書筆로 사신을 감탄하게 하기도 하였다.

순천 유배 생활 중에 큰 제약은 없어 보였던 바, 노수신의 행로는 순천을 벗어나지 않는 이상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었다. 가까운 정자에서 술을 마시고, 북쪽 계족산 자락 정혜사를 찾기도 하였다.

순천 교유관계 중 눈여겨 볼 특이한 점 하나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승려들과의 교유관계를 들 수 있다. 순천 유배생활 중 멀리 금강산 유점사의 주지였던 도

95) 노수신, 『소재집』 권1, 「詩」, 359쪽, 苦雨書懷 韻盡乃罷, "六月盡淫雨, 楚氣流伏枕, 廢帙澁綠銅, 頭髮沐如沁…"
96) 백광훈, 『玉峯詩集上』, 敬次穌齋相公.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잠에게 서신과 둥근 부채가 선물로 도착하였다. 승려들과의 교유관계는 순천 유배 중에도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전의 시 속에서 유점사 승려와의 기록이 보이지는 않지만 유점사에 있을 적에 홀로 자연을 벗 삼아 남긴 시문[97]을 통해 과거에 유점사에 머물렀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금강산 유람 이후에도 도잠과 지속적으로 소식을 주고받았던 것인지, 유배 소식이 금강산에 전해져 서신이 온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옛 지인에게 온 서신과 선물로 받은 부채는 그에게 있어 반갑기도 하였을 것이고, 자신의 처지가 안타깝기도 하였을 것이다.

多病春風過	병치레하는 중에 춘풍은 다 지났지만
開顔宿霧晴	활짝 웃으니 밤안개가 걷힌 듯하네
尺書傳友信	편지로 친구의 소식 전해 왔는데
團扇作人情	둥근 부채 선물까지 보냈구려
月色今宵白	달빛은 오늘 밤에 유독 밝기만 하고
猿聲萬里淸	원숭이 소리는 만 리 밖에 처량도 해라
平生泉石興	평생에 산수 좋아하는 내 흥취로
見爾不勝評	그대를 보니 품평을 다 못하겠네[98]

일찍이 노수신이 스승 灘叟 李延慶에 수학하며 陰崖 李耔, 十淸軒 金世弼과 교류하였다.[99] 김세필은 중종 14년(1519)년 명나라에 가서 『전습록』을 읽고 왔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김세필은 『전습록』이 공자의 가르침을 잇고 있음을 밝히며 양명학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100]

노수신이 이연경의 제자로 있을 시절에는 기묘사화를 피하여 충주에서 거처하던 이연경, 김세필이 함께 낚시를 하며 지내던 시기로 이들 사이의 학문적 교류가 노

97) 노수신, 『소재집』 권1, 「詩」, 楡岾寺, "山中無俗侶, 雲鶴與同過, 幽逕行疑盡, 閑花把愛多, 林禽啼節序, 庵子老煙霞, 漸出外山外, 莫令塵事加" (임정기譯, 『국역소재집』 1권책, 309쪽)
98) 노수신, 『소재집』 권1, 「詩」, 謝道岑.
99) 신향림, 「16C 전반 陽明學의 전래와 수용에 관한 고찰 : 金世弼·洪仁祐·盧守愼의 양명학 수용을 중심으로」 『퇴계학논집』 통권 118호, 퇴계학연구원, 2005. 참고.
100) 신향림, 앞의 논문 참고.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수신에게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며 순천 유배 이전부터 佛家와 접하며 사상적 토대가 되었을 것이다.101)

이외에도 순천 정혜사와의 교유 역시 눈여겨 볼만하다. 정혜사와 관련하여 두 편의 시를 남겼는데, 정혜사 승려 행정이 시축에 시를 부탁하였다.

西日昏炎瘴	지는 해에 무더운 장기는 어둑한데
秋雲在碧層	가을 구름은 첩첩 청산에 떠 있네
江潭形潦倒	강가에 쫓겨나 형용은 쇠퇴하고
歲月鬓鬅鬙	세월 속에 귀밑머리는 산란도 해라

華卷來何晩	화려한 시축 어찌 그리 늦게 왔느뇨
疎襟覺暫澄	탁 틘 가슴 잠시 맑아짐을 깨닫겠네
相催白雪和	그대는 백설곡 화답을 재촉하지만
自乏玉壺氷	내겐 옥호빙이 없으니 어찌할꼬102)

가을에는 정혜사의 승려 설유가 옛 암자를 중수한 것을 기념하여 시축에 시를 부탁하였다. 명망 높은 선비가 지역으로 유배왔기 때문에 단순히 시를 부탁하였을 수도 있지만, 앞서 기술한 것처럼 그의 학문적 성향 역시 이에 한 몫 했을 것이다.

寂寞無生地	적막한 것은 무생의 지경이요
凄涼不住天	처량한 것은 부주의 하늘이로다
誰將百金布	그 누가 백금을 가져다 까는가
自取一燈傳	스스로 한 등불을 전하네

101) 노수신, 『소재집』 권6, 「詩」, 「別四耐翁」<前略>山河大地百千花。盡在尋常百姓家。可笑舊都安處士。自知其性有增加。<後略>, (신향림, 「盧守愼의 心性論과 陽明學」 『충남대학교 유학연구 제』16집 49-88쪽,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007.)의 노수신의 양명학을 논하는 부분으로 "산하대지의 백가지 천가지 꽃이 다 평범한 백성의 집에 있다."는 말은 불가의 '산하대지가 모두 법왕의 몸'이라고 했던 말에서 온 것으로 평범한 백성이 부처이자 성인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그의 불가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다.

102) 노수신, 『소재집』 권1, 「詩」, 題定慧寺僧行靖軸中 用河西韻, (임정기譯, 『국역소재집』 1권책, 358쪽)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世界靑絲履	온 누리는 푸른 실로 짠 신을 신었고
功池白羽蓮	공지엔 백우선 같은 연잎이 흔들리네
羈情媿檀信	나그네는 시주할 것 없어 부끄러워라
只得學安禪	다만 안선이나 배울 뿐이로다

苦海難登岸	고해에서 저 언덕 오르기 어려워라
昏衢豈見天	혼구에서 어찌 하늘을 볼 수 있으랴
話頭疑有性	화두에는 아마도 성이 있는 듯한데
公案惜無傳	공안은 전해 온 게 없어 애석하구려

韓子終留服	한자는 끝내 의복을 남겨 주었지만
陶公未結蓮	도공은 백련결사를 하지 못했었지
惺惺第一義	성성의 제일의에 대해서는
不問瑞巖禪	서암의 중에게 묻지 않으련다[103]

위 시는 설유가 불법을 전했다는 찬사의 말을 전하고 있다. 온 누리에 부처의 공덕을 입고 있음을 이야기 하고 있는 바, '고해에서 저 언덕 오르기 어려워라'를 통해 불가의 이상인 열반의 경지에 도달하기 어려움을 말하고 있다. 이 시를 통해서도 노수신의 불가에 대한 학문적 인식 역시 엿볼 수 있다.[104]

노수신의 성품 덕인지 순천으로 유배 온 후 남쪽 이웃의 한 노인이 관심을 갖고 찾아왔다. 유배온 노수신을 위로하며 '풍속이 좋다고 말해 주네, 공께서는 삼가 몸조심하시구려, 그런대로 세월을 지탱할 만하리다'[105]고 하였다.

역원의 이씨성을 지닌 察訪도 찾아왔다.[106] 신세한탄을 했으련만, 찰방이 곧은 인물이었던지 어진 이를 보고 기뻐하였다. 또한 평소에 알고 지내던 성 수재가 순천 내에 지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게는 대접받고 한 수를 남겼다.

---

103) 노수신, 『소재집』 권2, 「詩」, 題定慧僧雪乳軸, 乳時重修古菴, (임정기譯, 『국역소재집』 2권책, 63~66쪽, 필자수정)
104) 노수신, 『소재집』 권2, 「詩」, 題定慧僧雪乳軸, 乳時重修古菴, (임정기譯, 『국역소재집』 2권책, 63~66쪽)
105) 노수신, 『소재집』 권1, 「詩」, 隣老來話, "南隣有一老, 形容頗枯槁, 悲我遠遷來, 爲談風俗好"
106) 노수신, 『소재집』 권1, 「詩」, 贈李察訪.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迢遰三韓路　　멀리 뻗은 것은 삼한의 길이요
羈危萬里身　　나그네는 만 리 밖의 몸이로다
大官逢令史　　대관이랑 영사와 서로 만나서
高義薄層旻　　높은 의리가 하늘에 다다르네

白見炊雲子　　흰 쌀밥은 운모로 지은 듯하고
淸知酌聖人　　맑은 술은 성인임을 알겠구려
君能更相愛　　그대 또한 능히 나를 아껴 주어
不厭問窮鱗　　싫어 않고 궁린[107]을 위문하누나[108]

5월의 어느 날에는 서쪽 이웃이었던 유씨 어른이 생강을 들고 찾아왔다.[109] 평소에 두풍이 있었던 노수신으로서는 생강은 귀한 채소가 아닐 수 없었다. 당시 생강은 진상품에 속하던 물품 중 하나였다. 조선시대 생강은 인삼보다 가치가 있었던 것으로, 조선후기 『영조실록』에서 어렴풋이 유추할 수 있다.

내국에서 入診하였다. 영의정 洪鳳漢이 爵을 받을 때에 蔘茶를 올릴 것을 청하니, 생강차로써 인삼차를 대신하라고 명하였다.[110]

순천에 있는 동안 단오와 추석, 두 차례의 명절을 보냈다. 유배지에서 명절을 보내는 일은 쉽지 않았을 텐데, 다행히 두 번 모두 혼자 보내지는 않았다. 단오 날에는 유씨, 장씨, 주씨가 술을 들고 찾아와 위로해 주었으며, 추석에는 南壽崑과 함께 술을 마셨다.[111] 명절 때의 모습을 다음 시로 남겼다.

---

107) 임정기譯,『국역소재집』1권책, 306~307쪽의 주석에 따르면 궁린은 물을 잃은 물고기를 말한 것으로, 곤경에 처한 사람을 비유하는바, 여기서는 저자 자신을 가리킨다.
108) 노수신,『소재집』권1,「詩」,謝成秀才 成時在府衙 , (임정기譯,『국역소재집』1권책, 306~307쪽)
109) 노수신,『소재집』권1,「詩」,謝薑西隣柳丈見惠 ,“培植能成物, 分張不待求, 辛溫風味蘊, 淨白雪芽抽, 且向窮年服, 那從九日休, 神昏況氣臭, 病裡幸無憂, 賜霑眞昨日, 持養卽同時”, (임정기譯, 『국역소재집』1권책, 324~325쪽)
110)『영조실록』107권, 42년, 7월 19일 1번째기사,“丁亥/內局入診。 領議政洪鳳漢, 請於受爵時進蔘茶, 命以薑茶代蔘茶。”
111) 노수신,『소재집』권1,「詩」, 醉贈南壽崑,“久雨霽亦佳, 仲月來秋風, 柴荊掩牢落, 誰復驚周公, 與君飮尊酒,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重午昇平日	승평의 단옷날을 당하여
窮鱗大海濱	궁린이 큰 바다 가에 있는데
相知二三子	아는 두세 사람이
來問獨孤臣	외로운 신하를 위문해 주네
竹葉侵尊淥	죽엽은 맑은 술그릇에 찰랑대고
榴花照眼新	석류꽃은 눈앞에 화사하구려
沈吟從滯迹	속박된 뒤론 조용히 읊기만 하고
爛醉卽忘身	몹시 취하면 곧 자신을 잊어버리네[112]

유배로 인한 괴로움에 시달렸던 그였지만 이웃에서 늘 신경써주고 있었고, 5월 중순 내내 좋은 비가 내리니 기분 좋은 마음에 순천 사람이었던 유일과 본가에서 보내준 좋은 술을 한잔 마시며 시를 나눴다. 유일과는 순천 유배 중 평소에 가깝게 지내던 사람으로 그의 본관은 長沙, 자는 可中으로 1552년(명종7) 임자 식년 진사시에 3등으로 합격한 사람이었다. 이렇듯 비가 오는 날에는 함께 시를 주고 받기도 하였으며, 귤을 나눠 먹기도 하였다.

귤 역시 고려시대 이전부터 진상품으로 설정된 물품으로, 조선 태종대 제주의 귤나무를 순천에서 재배하게 하였던 기록[113]이 있어 순천에서 귤을 재배했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의 귤은 종묘 제사를 지내거나, 손님 접대 시에 중요하게 쓰였던 물품이었으며,[114] 성균관 유생들을 대상으로 黃柑製가 열릴 때나 접했던 귀한 물품이었다. 그렇기에 이런 과일은 유배지에서 접하기에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노수신에 대한 지역민들과의 관계를 알 수 있다.

好思終何窮, 正値端正月, 相望與君同, 天時有晦朔, 人事有始終, 欲輕腸斷聲, 百慮如銛鋒"(임정기譯, 『국역소재집』1권책, 383쪽)

112) 노수신, 『소재집』 권1, 「詩」, 端午日 兪張朱携酒來慰, (임정기譯, 『국역소재집』1권책, 329~330쪽, 필자수정)

113) 『태종실록』24권, 12년, 11월 21일 4번째기사, "遣上林園別監金用于濟州, 移栽柑橘數百株于順天等沿海郡"

114) 『세조실록』2권, 1년, 12월 25일 1번째기사, "丙寅/諭濟州都按撫使曰: "柑橘薦宗廟、供賓客, 其用甚切…"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외에도 이영로와 종종 술벗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영로에 대해선 따로 더 밝혀지고 있는 것이 없다. 그의 초청으로 종종 竹亭에서 술을 마시며 답답한 마음을 풀기도 하였다. 아래의 시는 밝은 달빛 영로의 정자에서 술을 마시면서 지은 시이다.

白月搖漁岸	밝은 달은 고기 잡는 강변을 흔들고
凉飈轉柳磯	서늘한 바람은 버들 둑 낚시터에 불어오네
開尊霞屑窣	술동이 여니 신선 음료가 문득 나온 듯
發語玉霏微	고상한 시구는 옥가루를 쏟아내는 듯
天地有消長	천지간엔 소장 성쇠의 도가 있지만
江山無是非	강산은 본디 시비가 없는 법이니
新亭楚囚奏	신정에서 초수의 음악을 연주하노라니[115]
歸興不禁飛	돌아갈 흥취 일어남을 금치 못하겠네[116]

이에 더하여 환선정에서는 송인수와 김인후가 남긴 시에 차운하여 글을 남기기도 하였다. 순천 유배생활 중 노수신은 환선정을 종종 들렀던 것으로 보인다.

湖上爭看李郭船	호숫가에서 이곽의 배를 서로 다퉈 보아라
咨詢風俗必儒賢	풍속을 자문한 이는 반드시 유현이었겠지
時從南國甘棠下	때로는 남국의 감당 아래서 쉬기도 하고
暫醉佳人錦瑟前	잠시 미인의 비파 타는 앞에 취해도 봤네
盡興那禁憂自集	흥을 다하니 근심이 절로 모여듦을 어찌 금하랴
多情不免物相牽	정이 많으니 외물에 이끌림을 면치 못하네
誰知澤畔無窮思	그 누가 알리오 택반의 무궁한 생각을

115) 임정기譯, 『국역소재집』1권책, 367쪽 주석에 따르면 신정은 江蘇省 남쪽에 있던 정자이고, 楚囚는 초나라의 죄수란 뜻으로, 이때 저자 또한 고향을 떠나서 타관에 구속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신정과 초수의 고사를 자신의 처지에 빗대서 인용하였다.

116) 노수신, 『소재집』 권1, 「詩」, 又飮靈老亭 次韻, (임정기譯, 『국역소재집』1권책, 367쪽, 필자수정)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都寄亭中第一仙　　환선정의 제일 신선에 부쳐지네[117]

한편 가을밤에 등불을 들고 士炯 韓胤明(1537~1567)이 찾아와 하룻밤을 묵어갔다.[118] 본관은 청주, 자는 사형, 호는 炯菴으로 후에 의금부도사로 있다가, 이황의 천거로 선조가 세자로 있을 때 王孫師傅가 되었던 사람이었다. 또한 그는 선조가 노수신을 해배하는데 도움을 주었던 인물로 그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韓胤明의 자는 士泂으로 당시에 명망이 있어 생도들을 敎授하였는데, 宣祖도 潛邸 때에 또한 그에게 수업하였다. 한윤명이 경서의 뜻을 강론할 때면 盧蘇齋의 논리를 칭찬하였다. 선조가 그는 어떤 사람인가를 물으니, 한윤명이 말하기를, “지금 시대의 큰 유학자인데 죄 아닌 죄로써 바다속의 섬에 귀양가 있습니다.”고 하였다. 선조가 그에게 마음을 기울인 지 이미 오래되었는데, 왕위에 오르자 仕籍에 있던 옛사람을 등용하였다. 소재는 典籍으로 조정에 돌아온 지 7년 만에 정승이 되었으니, 한윤명이 먼저 그를 포용한 힘이 많았다.[119]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노수신은 여러 부류의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교유관계를 맺으며 유배생활을 이어나갔다. 그 대상은 학생, 승려, 지역민, 사족 및 친우들로 유배생활에 큰 힘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117) 노수신,『소재집』권1, 「詩」, 坐有誦喚仙亭題韻者 感而和之. 필자수정.
118) 노수신,『소재집』권1,「詩」, 次士炯韻, "雨意沈沈夜不風, 燈花相報慰逃空, 凝神未發驚人語, 作主猶存盡己忠, 江上形容枯似木, 天涯魂夢亂於蓬, 坐看萬里煙塵靜, 明月歸來城市中", (임정기譯,『국역소재집』1권책, 347쪽)
119)『紫海筆談』, 韓胤明字士泂, 有時名, 敎授生徒, 宣廟潛邸亦受業焉, 胤明因論經義, 每稱盧蘇齋之論, 宣廟問是何人, 胤明言當今大儒, 以非罪放海中, 宣廟傾心已久, 及卽位錄用舊人之在籍者, 蘇齋以典籍還朝七年, 而入內閤, 胤明先容之力居多.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4. 도학적 성찰과 학문 심화

순천에서의 유배생활은 젊은 나이에 유배를 떠나 온 노수신으로서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일이었다. 유배생활의 고달픔을 해소하기 위해 평소에 술을 마시거나, 시를 지으며 하루를 보냈으나, 유배의 괴로움으로 학문까지 멀리한 것은 아니었다. 그의 나이 29세에 이미 문과의 초시, 회시, 전시에 모두 장원을 한 상태였으니, 학문적 깊이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20대와 30대에 걸쳐 주자학을 깊이 공부하고 있었기에 순천 유배생활 중에도 주자학을 통해 시련을 이겨나가고자 하였다. 노수신의 주자학에 대한 열정은 '꿈속에서 전주를 강론하였다'는 시[120]를 남겨놓았을 정도로 유배생활 틈틈이 매진하였으며, 주희의 책을 읽으며 사색에 잠겼다.

仲尼畏匡人	공자는 광 사람에게 경계심 가졌고
文王囚羑里	문왕은 유리옥에 갇혔었는데
死生在前了	생사의 갈림이 눈앞에 닥쳤음에도
處之恬然耳	여기에 태연히 대처하였도다
<中略>	
二公古大賢	위의 두 분은 예전의 대현이거니
豈是强制得	어찌 이 경지를 강제로 얻었으랴만
淺見不無疑	내 천견으로는 의심이 없지 않아
靜坐究其極	조용히 앉아서 깊이 궁구하노라[121]

이와 같이 독서를 통한 마음의 수양은 이 시기에 그치지 않고, 진도로 이배된 이후에도 계속되어 주희 책을 정독하며 이치에 통달해 나갔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주자학 이외에도 선학에도 깊은 조예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기술한 바와

120) 노수신, 『소재집』 권1, 「詩」, 夢與同志 講論傳註 覺輒記以短律, (임정기譯, 『국역소재집』 1권책, 344~345쪽)
121) 노수신, 『소재집』 권1, 「詩」, 讀書, (임정기譯, 『국역소재집』 1권책, 293~295쪽)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같이 승려들과의 지속적인 교유를 통해 학문적, 사상적 성장을 이어나갔다.

노수신의 사찰 생활은 사대부들의 유람여행 중 나타나는 일반적인 숙박 혹은 풍류의 일종 이기보다 승려들과의 지속적인 담화를 바탕으로 사상적, 학문적 성장의 습득시기로 보이며, 학문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시기로 판단된다. 이를 바탕으로 그는 유배시기에도 계속적인 불가와 인연이 이어지고 있으며, 그의 사상, 학문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122]

이를 바탕으로 노수신이 상주 관음사에 머무를 적 사경 승려의 시축에 남긴 글은 당시 그의 학문적 성향을 짐작할 수 있다.

傳註留情負象山	전주에 유의한 것이 상산을 저버렸으니
十年說話摠成閑	십 년의 학문 견해가 다 헛일이 돼 버렸네
憑君眼著鵝湖辨	당부하노니 그대는 아호변을 눈여겨보소
詎喚澄源做兩般	어찌 본원 맑히는 걸 두 가지로 본단 말인가[123]

31세에 노수신이 지은 시로 이 당시 그는 상산의 학문이 아닌 주자 학문에 얽매여 십년의 시간을 허비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점은 노수신이 주자학적 심취 이외에도 상산학에 대한 그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상주에서 기거하는 동안에는 승려들과의 교유관계가 깊었기에 불가와 인연이 깊었던 것을 스스로 책망하는 시를 한편 남겼다.「적수암에서 영운에게 주다」의 후반부이다.

且要源澄淨	우선 마음을 맑게 해야 하거니와

122) 이식,『택당집』권15, 「雜著」, “노소재가 섬에서 돌아와서는 느닷없이 禪學을 제창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퇴계가 크게 놀라워하면서도 그와 토론을 벌일 수도 없는 처지라서, 때때로 詩句를 가지고 그 잘못을 들추어내곤 하였으나, 이에 대해서 노소재는 또 매우 준엄하게 답변을 할 따름이었다. 이로부터 도학에 종사한다는 사람들이 그 속에 선학의 요소를 함께 끼워 넣곤 하였는데, 이렇게 된 것은 소재가 실로 그 단서를 열어 놓은 것이라고 하겠으니, 이는 주자의 시대에 홀연히 陸象山이 출현한 것과 똑같은 경우라고 하겠다.” 진도 유배시절 노수신의 학문을 택당 이식과 퇴계 이황은 양명학이라 하였다.

123) 노수신,『소재집』권1,「詩」, 思勁詩軸 讀休菴所賜次韻 慨然有感 輒復和題. (임정기譯, 『국역소재집』1권책, 189~190쪽)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還須體寂虛　　몸 또한 맑고 고요하게 가져야지
遠慚唐吏部　　멀리 당의 이부 시랑께 부끄러워라
羈旅悅從廬　　나그네로 스님 집 즐겨 찾은 것이[124]

<論佛骨表>를 올려 佛法을 강력하게 배척하였던 당의 이부시랑 한유를 떠올렸던 것이다. 이를 통해 살펴보더라도 이시기의 노수신은 학문적 견해가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태로 노수신이 진도에서 『인심도심설』을 편찬한 후, 이황, 기대승, 이식으로부터 양명학을 표명하고 있다고 비판받던 시기에 비해 시간의 차가 존재하지만, 학문적 사색을 계속 이어나감에 따라 이후에 있을 진도유배시절 그가 남기는 학문적 성과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노수신은 유배로 인한 고달픔에 시달렸지만 憂國衷情마저 잊은 것은 아니었다. 15세기 말 道學運動은 왕실의 정통성 훼손과 훈구공신의 권력독점에 대한 철학적 대응이었다. 성현의 가르침을 마음 삼는 '경전의 내면화'를 추구하면서 공부의 목표를 하늘을 따르는 사람의 길, '人道'에 두었다. 국정참여에 앞서 도덕실천이 먼저라는 '先修己後治人'을 유독 강조하였다.[125]

이를 바탕으로 노수신 역시 마음의 수양을 통한 내면화를 통해 조정의 앞날을 걱정하였다. '성상의 은혜는 자못 환한 같거니와, 신의 죄는 실로 어리석고 잡란함일세, 이 가슴속에 일편단심은 있지만, 눈으로 두 태양은 바라볼 수 없네'[126] 사화의 여파로 유배지에 있지만 문정왕후 치세, 권신들의 세상은 바라보기 힘들었다. 그런 마음에 한수 더 읊었다. '의리는 곧 밖에서 행하는 것이니, 임금은 천륜으로 만난 게 아니거늘, 그런데 어이하여 이 일편단심을, 갈수록 수없이 태우게 되었는고, 육신은 가을 창 달 아래 앉았는데, 넋은 새벽 숲 연기 위를 떠도누나, 고개 숙이고 마냥 말없이 있자니, 남들 앞에서 통곡이라도 하고파라'[127]

---

124) 노수신, 『소재집』 권1, 「詩」, 積水菴贈靈雲 二律. (임정기譯, 『국역소재집』 1권책, 188쪽)
125) 이종범 앞의 논문.
126) 노수신, 『소재집』 권1, 「詩」, 偶成十韻, "…聖恩殊渙汗, 臣罪實愚唏, 抱有丹心一, 瞻無白日雙"
127) 노수신, 『소재집』 권1, 「詩」, 義是 七月, "義是行於外, 君非合以天, 如何一片赤, 轉作萬過煎, 形泊秋窓月, 魂飄曉樹煙, 低頭永泯默, 欲哭在人前"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순천 유배생활을 이어가던 중 무오사화로 인해 金宏弼(1454~1504)이 순천에 유배된 후 갑자사화 때 죄가 가중되어 생을 마감했던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노수신 역시 이후 자신의 처지가 어떻게 변할지 막막하게 다가왔던 것이다. 노수신은 순천 유배 생활 중 「선생의 뒤를 이어 같은 지역에 유배되니, 문득 비감이 생기어 그 감정을 시로 드러내노라」를 지어 그의 심정을 나타냈다.

好過瞿塘灩澦堆	구당협의 염예퇴를 좋이 잘 지나갔고
容髭依舊不歸來	용자도 여전했는데 돌아오질 못했네
獨沿千載伊波遠	홀로 천년 전 이천의 연원을 계승했기에
人憶當時宋網恢	사람들은 송망이 넓었음을 기억한다오
殘焰尙堪開後學	남긴 덕이 아직도 후학을 개도할 만한지라
報功終許寵中台	공의 보답으로 끝내 중태를 추증하였네
自知小子狂疎甚	나 소자는 몹시 거칠다는 걸 잘 알지만
急向泉臺幸見裁	급히 지하에 가서 알아주심을 입고 싶구려[128]

분명 유배의 시련은 극복하기에 쉽지 않았다. 하지만 파직 이후부터 순천 유배기까지 자유로운 활동을 통한 사색은 진도로 이배된 후 곧 마음의 안정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며, 그의 학문에 큰 보탬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128) 노수신,『소재집』권1,「詩」, 謫躡先生後 輒生悲感 情見乎詩, (임정기譯, 『국역소재집』1권책, 335~336쪽)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Ⅳ. 맺음말

이상으로 노수신의 유배배경부터 유배에 이르는 약 2년간의 생활을 그의 『소재집』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의 유배생활은 을사사화로 인한 정치적 문제에 연유하여 유배생활이 시작되었다. 이미 앞서 2번의 사화로 사림의 위신은 축소되었으나, 그는 기묘사림이었던 이연경의 가르침 아래 기묘사림의 신원회복 및 외척세력의 부당한 정치적 입장에 대해 소신껏 활동하다가 파직 및 유배에 이른다.

그의 파직 및 유배생활의 특징을 살펴보면 크게 두가지를 들 수 있다. 먼저 파직과 함께 유배령을 받은 것이 아닌 약 1년 6개월 간의 기간 후에 유배가 이루어졌기에 그 기간 동안 상주 낙향 생활을 하다가 유배령을 받았다. 파직 후 그는 스승 이연경을 찾아갔으며, 고향인 상주에서 선영에 제를 올리며 관음사에서 승려들과 교유하며 지내던 중 조부 노후의 상으로 가족이 모두 상주로 이주하게 되었다.

다음은 유배생활 중의 교유관계를 통한 학문, 사상적 발전기를 들 수 있다. 순천에서 진도로 이배된 이후 그는 19년간의 유배 생활 중 학문, 사상적 대집성을 이루었다. 그는 이러한 성과에 앞서 약 2년간의 상주 낙향생활과 순천 유배를 통해 자유롭게 교유활동을 펼쳤으며, 특히 승려들과의 교유는 그에게 있어 성리학에 대한 끝없는 학문적 사유로 이어졌고, 진도 유배시절 그 성과로 이어졌다.

비록 그의 순천 유배생활이 6개월간의 짧은 기간이었으나 지역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민들의 자발적 지원을 받으며 유배생활을 이어 나갈 수 있었고, 순천 특유의 경제적 풍요로움은 그의 유배생활에 그나마 보탬이 되었다. 국가에 대한 걱정과 잦은 가속에 대한 그리움은 그의 유배생활에 있어 고난으로 다가왔으나 비교적 자유로운 유배생활이었기에 극복해 나갈 수 있었다.

노수신이 유배생활을 이어가던 1547년 5월 전국에 사면령이 내려졌다. 사면이란 국가의 경사를 축하하기 위해서 혹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로 민심을 달래는 차원에서 형벌을 소멸시키거나 감해주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대사 행렬을 보며 노수신 역시 사면에 많은 기대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만, 안타깝게 그는 사면 대상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에 포함되지 못하였다.

노수신의 유배생활의 고난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순천에서 유배생활을 이어가던 1547년 9월 양재역벽서사건[129]이 일어났다. 부제학 鄭彦慤(1498~1556)이 선전관 李櫓와 함께 封書 하나를 가지고 입계하여 명종에게 아뢰면서 시작된 이 사건으로 노수신은 진도로 이배되었다.

을사사화로 유배간 이들을 겨냥한 것으로, 윤원형 세력이 정적으로서 잠재력있는 이들을 노리고 일으킨 사건이었다. 윤원형, 이기, 정순명 등은 을사사화 때 처벌이 미약하여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는 것이라며 가중처벌을 주장하였다. 이로 인해 을사사화때 유배되었던 많은 이들이 형벌이 가중되었고, 노수신은 絶島安置 되어 진도에서 19년간 유배생활을 하게 되었다.[130]

순천 유배부터 시작된 노수신의 유배생활은 그의 일생에 있어 큰 획을 그은 사건이었다. 그는 파직 이후부터 정계에서 한발짝 물러서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과 많은 사람들과의 교유를 통해 앞으로 그의 학문적 심화, 나아가 사상적인 심화를 성찰의 과정을 거듭함으로써, 그에게 영향을 주었다.

---

129) 정언각이 올린 글을 살펴보면 그 글은 붉은 글씨로 썼는데 '女主가 위에서 政權을 잡고 奸臣 李芑 등이 아래에서 권세를 농간하고 있으니 나라가 장차 망할 것을 서서 기다릴 수 있게 되었다. 어찌 한심하지 않은가. 仲秋月 그믐날.'이라고 하였다.

130) 윤근수, 『月汀漫筆』, 양재역 벽상서를 정언각이 고변한 뒤에 당시 사류들의 죄가 결정되었는데, 이때 진복창과 윤춘년이 소재를 구해주어, 死籍에서 벗어나고 진도 귀양에 그치게 되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參考文獻>

1. 사료

『太宗實錄』, 국사편찬위원회

『世祖實錄』, 국사편찬위원회

『中宗實錄』, 국사편찬위원회

『仁宗實錄』, 국사편찬위원회

『明宗實錄』, 국사편찬위원회

『宣祖修正實錄』, 국사편찬위원회

『仁祖實錄』, 국사편찬위원회

『英祖實錄』, 국사편찬위원회

『광주노씨세보』, 光州盧氏世譜編纂委員會盧垓, 2006

『大東野乘』, 한국고전번역원

『東國輿地勝覽』, 한국고전번역원

국역『增補文獻備考』,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8-1990

김시양, 국역『紫海筆談』, 한국고전번역원

노수신, 국역『蘇齋集』1, 2, 한국고전번역원, 2014, 2015

백광훈,『玉峯詩集』上, 한국고전번역원

윤근수, 국역『月汀漫筆』, 한국고전번역원

이긍익, 국역『燃藜室記述』, 한국고전번역원

이식,『澤堂集』, 한국고전번역원

이상 한국고전번역원 (http://www.itkc.or.kr)

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 단행본

도도로키 히로시, 허우긍, 『개항기 전후 경상도의 육상교통』,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7

이종범,『사림열전』1, 2, 아침이슬, 2008

정치영,『사대부, 산수 유람을 떠나다』, 한국학중앙연구원, 2014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한국사』28,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국사편찬위원회, 1996

3. 논문

김경숙,「조선시대 유배형의 집행과 그 사례」『사학연구』55,56, 한국사학회, 1998

_____,「17세기후반 儒生 李必益의 유배생활」『한국문화』 제38집, 규장각한국학연구소, 2006

김경옥,「조선시대 유배인의 현황과 문화자원의 활용: 전남지역을 중심으로」『역사학연구』40, 호남사학회, 2010

김광순·문경현·최승호,「蘇齋 盧守愼 硏究-文學·政治·思想을 中心으로」『韓國의 哲學』第17號, 慶北大學校 退溪硏究所, 1989

김미경,「진도 유배문화의 일고찰 -소재 노수신과 무정 정만조를 중심으로-」『한국도서연구』18권 1호, 한국도서학회, 2006

김방룡,「조선시대 불교계의 유불교섭과 철학적 담론」,「충남대학교 유학연구」25집,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011.

김용흠,「조선전기 훈구 · 사림의 갈등과 그 정치사상적 함의」『동방학지』124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4

김홍경,「조선초기 관학파의 유학사상」, 한길사, 1996.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도도로키 히로시, 「조선시대 邑治와 관도의 연결 유형에 따른 교통로의 상징성 : 경상도의 사례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11권 제3호 통권31호, 한국지역지리학회, 2005.

박병익,「蘇齋 盧守愼의 『피구록』연구」『한국고시가문화연구』제29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12

박영관,「玉峯 白光勳 詩에 나타난 交遊關係 硏究」「한국고시가문화연구」제16호, 한국고시가문학회, 2005

서수용,「蘇齋 盧守愼 詩 硏究 : 流配期의 詩作을 中心으로」,학위논문(석사), 성균관대학교, 1984

송웅섭, 「조선 성종대 전반 언론의 동향과 언론 관행의 형성 : 성종대 언론 발달의 요인과 관련하여」『한국문화』50집, 규장각한국학연구소, 2010

신규수,「조선시대 유배형벌의 성격」『한국문화연구』제23호,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12

신향림,「蘇齋 盧守愼의 공부론에 나타난 陽明學」『韓國思想史學』24, 韓國思想史學會, 2005

_____,「16C 전반 陽明學의 전래와 수용에 관한 고찰 : 金世弼·洪仁祐·盧守愼의 양명학 수용을 중심으로」『퇴계학논집』통권 118호, 퇴계학연구원, 2005.

_____,「盧守愼의 心性論과 양명학」『유학연구』16,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007

_____,「盧守愼의 초기 사상과 경세론」『泰東古典硏究』제25집,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009

심재우,「조선전기 유배형과 유배생활」『국사관논총』92, 국사편찬위원회, 2000

우인수,「조선 선조대 지산 조호익의 유배생활」『조선시대사학보』66, 조선시대사학회, 2013

이옥희,「유배인의 기록을 통해 본 진도 지역의 민속문화」『남도민속연구』제19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집, 남도민속학회, 2009

이종범,「15세기 말~16세기 중반 전라도 유배인의 활동과 교유양상」『역사학연구』제41집, 호남사학회, 2011

정연식,「조선시대의 유배생활-조선후기 유배가사에 나타난 사례를 중심으로」『인문논총』9, 서울여자대학교, 2001

정재훈, 「특집 조선왕조의 정치와 공론(公論) : 16세기 사림공론(士林公論)의 내용과 의미」『조선시대사학보』71권, 조선시대사학회, 2014

정진영,「섬, 풍요의 공간: 19세기 중반 한 유배객의 임자도 생활」『고문서연구』제43집, 한국고문서학회, 2013

조성을,「蘇齋 盧守愼의 學問과 政治活動」『남명학연구』3집, 남명학회, 1993,

조윤선,「조선시대 赦免 · 疏決의 운영과 法制的 · 政治的 의의」, 『조선시대사학보』38, 조선시대사학회, 2006.

조희창,「蘇齋 盧守愼의 詩文學」『한국고전연구』제16집, 한국한문고전학회, 2008

_____,「盧守愼의 詩世界-海東江西詩派의 詩論을 중심으로-」『한문고전연구』20, 한국한문고전학회, 2010

_____, 蘇齋 盧守愼의 詩文學 硏究」, 학위논문(박사), 성신여자대학교, 2011

차경화,「玉峯 白光勳의 交遊詩 硏究」학위논문(석사), 동아대학교, 1998

차주영,「16世紀 士林勢力의 執權過程과 政治性向」, 학위논문(박사), 상명대학교, 2004

채용복,「蘇齋 盧守愼 思想과 學問態度」『韓國의 哲學』第20號, 慶北大學校 退溪硏究所, 1992

최성환,「조선후기 추자도 유배인의 추이와 생활양상」『도서문화』37, 국립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2011

최재목, 「朝鮮에서 朱子 『大學章句』에 대한 한 挑戰 : 盧守愼의 『大學集錄』을 中心으로」『양명학통권』27호, 한국양명학회, 2010,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한춘순,「明宗代 乙巳士禍 硏究」『인문학연구』2,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소, 1998
_____,「明宗代 勳戚政治 硏究」, 학위논문(박사), 경희대학교, 2000

Collection @ chosun